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4 Vol · 220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2010 하반기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대관안내

⊙ **대　　상** 중극장, 소극장

⊙**대관내용** **대관기간 :** 2010년 7월 ~ 12월(6개월간)

▸▸ 무대보수 및 정비로 인한 대관 불가 기간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극장	18(일)~31(토)	1(일)~16(월)	20(월)	18(월)	22(월)	20(월)
소극장	–	–	20(월)	18(월)	22(월)	20(월)

▸▸ 시립예술단 및 시 자체 공연 · 행사 우선 배정　▶ 접수 상담시 안내

접수기간 : 2010년 4월 5일(월) ~ 4월 16일(금)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 대극장 및 전시실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중 · 소극장 정기대관 우선 실시
(대극장 및 전시실 정기대관은 공사일정 확정 후 별도 추진)

⊙**기본방향** **순수문화예술 공연 우선** → 대중 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

국내 · 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종합예술공연 진흥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소규모 연주회는 소극장 우선 대관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대관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아니하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계약체결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607 - 6051~6)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어버이날 기념음악회

바리톤 김동규

김동규와 함께하는 I LOVE PAREN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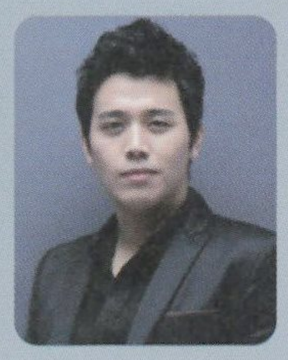
부모님 사랑합니다 !

지휘 김봉미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홍지형



크로스오버가수 JUN-O

연주 : YMCA NEO 오케스트라

2010. 5.7(금) 오후 7시30분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주)P&P Classic 티켓 | VIP 45,000원 / R석(1층) 35,000원 / A석(2층) 25,000원
예매 | 인터파크, 옥션, 티켓링크, 팝부산, 해운대문화회관 http://hcc.haeundae.go.kr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 누림회원 • 초 • 중 • 고/ 단체 20명 이상/ 누림회원(20%), 장애인(50%)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이원국 발레단

사랑의 세레나데

Love Serenade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보급 발레리노 **이원국**

한국 남성발레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그는, 국내 남성발레가 이원국 이전과 이원국 이후로 나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레계에 이정표를 세운 인물이다. 20년동안 '유니버설 발레단'과 '국립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약

2010. 4.17(토) 오후 5시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이원국발레단 제작 | 이원국 발레단 티켓 |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예매 | 티켓링크, 팝부산, 해운대문화회관 http://hcc.haeundae.go.kr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 누림회원 • 초 • 중 • 고/ 단체 20명 이상/ 누림회원(20%), 장애인(50%)

피아노 10~30% 할인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본점	051-863-0900
현대백화점 8층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7층	051-743-7784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후문입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3층 피아노사(동백섬앞)	051-743-7785
장림 홈플러스 5층	051-266-4747
광복롯데백화점 9층	051-246-0660

www.**busanyamaha**.com **부산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진구 양정 1동 353-2번지 T.051-868-5551 **인터넷 사업부** 051-529-0038

Contents

08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10 프리뷰

18 반갑습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이문섭 집행위원장

20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④

노란 수선화에게서 사랑을 배우다 | 정일근

2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자연스러움의 가치 | 이재걸

26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영화 '피아니스트' | 이동신

28 불멸의 거장, 쇼팽2

건반 위의 예술가 | 노경원

29 월드뮤직

쿠바II '누에바 뜨로바(Nueva Trova)' | 황윤기

30 리뷰

부산시립극단 '헨리 4세-왕자와 폴스타프' | 김문홍

부산시립교향악단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 하순봉

32 그곳에 가면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34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시민취타대

36 프로그램 가이드

52 부산문화회관 소식

55 나의 애청음반

'샤콘느' 그리고 '세링의 연주' | 김의호

56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60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61 100자 토크

예술에의 초대 2010 + 04 Vol·220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3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04 April 201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 | MON | TUE

4

5

중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하늘개인날 '방외지사 이옥' 19:30
균일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하늘개인날(010-5133-1220)

6

중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하늘개인날 '방외지사 이옥' 19:30
균일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하늘개인날(010-6470-5667)

11

중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사계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13:00, 17:00
균일 1만 6천원/극단 사계(611-8518)

소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호랑이를 만난 놀부'
11:00, 15:00
균일 1만 6천원/극단 사계(611-8518)

12

중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사계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10:40
균일 1만 6천원/극단 사계(611-8518)

13

중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4회 정기연주회
'음악, 민족 혼을 담다'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1~3)

18

중 | 썬 공연단 라틴아메리카 댄스공연 'Feeling'
18:00 5만원 · 3만원/썬공연단(644-6627,
010-2983-3849)

소 | 박강수 콘서트 '봄이 온단다'
15:00, 18:00
균일 3만3천원/엔터테인먼트 pom
(02-718-3487, 010-5470-3487)

19

20

중 | 동문초청 제 21회 경성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19:30
무료/경성대학교 음악학부(663-4918)

25

중 | (사)중앙무용문화연구원
제 80회 부산, 영남무용예술제 09:00
정성철(02-866-8880, 011-284-8880)

소 | 세상을 춤추다 18:00
1만원 · 5천원/김수희(010-8545-8065)

26

소 | 제 3회 토브여성합창단 연주회 19:00
무료/김민숙(010-4506-0857)

27

중 | 김은희 피아노 독주회 19:30
1만원 · 5천원/김은희(010-9269-5567)

소 | 신문범 타악연주회 Part2 '산조(散調)' 19:30
균일 1만원/신문범(583-7958,010-3282-8014)

전시실

▶ 제 19회 부산서원연합회 공모전-대전시실
4월 8일(목)~4월 11일(일)
※ 시상식 4월 11일 오후 2:00 국제회의장
문의 : 부산서원연합회 김종두
(317-8845, 010-7100-1200)

▶ 제 4회 한서미술대전-대전시실
4월 15일(목)~4월 17일(토)
※ 시상식 4월 15일 오후 5:00 국제회의장
문의 : 한서미술협회 정충옥
(811-1238, 010-2582-4201)

▶ 제 7회 부산서예전람회-대, 중전시실
4월 18일(일)~4월 22일(목)
※ 시상식 4월 18일 오후 1:00 국제회의장
문의 : 한국서예가협회 부산경남지회
(759-8858, 010-3000-6066)

▶ 제 20회 국제서화예술전-대, 중전시실
4월 24일(토)~4월 27일(화)
문의 : 국제교류서도협회
(702-2250, 010-4448-9553)

▶ 추사서화예술전국공모대전-대전시실
4월 29일(목)~5월 3일(월)
※ 시상식 4월 29일 오후 1:00 국제회의장
문의 : 추사서예가협회
(632-7077, 010-8463-2300)

▶ 제 5회 부산디카사랑전시회-중전시실
4월 30일(금)~5월 2일(일)
문의 : 부산디카사랑 임구택
(263-0035, 011-9393-9880)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WED	THU	FRI	SAT
	1 대	(사)춤다솜무용단 2010 '비우니 향기롭다' 19:30 5만원 · 2만원 · 1만원 춤다솜 무용단 (010-3738-2770, 02-3408-3519)	**2**		**3** 대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제 1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관악의 대향연' 19:30 1만원 · 5천원/김두천(010-2559-7569)
		중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The Solar System' 19:30 균일 1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242-6108)	중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The Solar System' 18:00 균일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242-6108)
		소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19:3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7	**8**	**9**	**10**
	중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한(韓恨恨)' 19:30 균일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중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한(韓恨恨)' 19:30 균일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중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사계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13:00, 17:00 균일 1만 6천원/극단 사계(611-8518)
		소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호랑이를 만난 놀부' 10:40, 19:30 균일 1만 6천원/극단 사계(611-8518)	소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호랑이를 만난 놀부' 11:00, 15:00 균일 1만 6천원/극단 사계(611-8518)
14	**15**	**16**	**17**
중	메조소프라노 한현미와 함께하는 프랑스음악 19:30 균일 2만원 한현미(415-4532, 010-4870-4532)	중	소프라노 정태미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DS뮤지컬컴퍼니(323-3244, 010-5489-8900)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8회 정기연주회 'BBB (Beethoven & Brahms in Busan) I'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18:00 무료/최정인(070-5175-1150)
	소	대연엘림음악학원 제 3회 정기연주회 18:30 이세희(636-6720)	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8 '오지은 콘서트'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소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1	**22**	**23**	**24**
중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슈만의 사랑이야기' 19:30 균일 1만원/유니코(02-532-4876)	중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앙상블 예술가곡'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중	바이올리니스트 김일양 귀국 독주회 19:30 초대/예은예술기획(632-6904)	중	부산음악사랑회 제 5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이경자(010-4118-4975)
						소	토요상설무대-국악그룹 아비오 초청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8	**29**	**30**	**5/1**
						중	2010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프랑스 Nasser Martin-Gousset Company 'COMEDY' 18:00 2만 5천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리 신차오 'BBB'로 클래식 매니아들을 사로 잡는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4월 16일 2010년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프로젝트의 닻을 올린다.

지난 해 6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10대 수석지휘자로 부산 활동을 시작한 리 신차오는 특유의 친화력과 신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국내외 음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09년 시즌을 마치고 중국 활동에 전념한 리 신차오는 지난 3월 5일 2010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지휘하며 2010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월에는 2010년 기획 프로젝트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첫 무대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베토벤과 브람스에 열광하는 음악애호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

대학 1학년인 20세의 나이로 중국 센트럴 필하모닉, 상하이 심포니와 같은 중국 내의 모든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연주했던 리 신차오는 언제나 화려한 수식어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가족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시작한 리 신차오는 1993년 중국 중앙음악학교에 재학 중이던 22살 나이에 제 1회 중국국립지휘콩쿠르에서 1위를 하고, 1997년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브장송국제지휘콩쿠르에서 2위

를 차지했다. 1999년 비엔나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리 신차오는 수많은 작품들을 지휘하며 관객과 평론가 모두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아왔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국립오페라발레극장의 수석지휘자를 거쳐 1999년부터 중국국립교향악단(CNSO) 상임지휘자와 중국국립가극장 음악감독, 귀양교향악단 음악감독, 중국국립음악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리 신차오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현대 작품들을 연주하는 데도 힘써왔다. 새로 작곡된 많은 중국 작품들을 직접 발굴하여 초연하는 것은 물론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마술피리'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나비부인' '라보엠' '토스카' '마농 레스코'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일트로바토레' '아이다' 등 중국 내 오페라 무대에도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CNSO와 해외공연도 활발하게 진행한 리 신차오는 1999년 가을, CNSO의 일본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2002년에는 일본, 호주,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순회연주를 펼치기도 했다. 도쿄 공연 후 언론으로부터 "마에스트로와 국립교향악단은 그 어떤 것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리의 지휘 스타일은 세이지 오자와를 닮았다" "마에스트로의 지휘를 보고 있노라면 동양의 음악인임에도 서구 음악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콘서트홀 공연으로 그는 그곳에서 아시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첫 번째 중국 지휘자가 되었고, 베를린에서는 전 총리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스페인에서는 관객들이 그와 오케스트라가 공연장을 떠날 때까지 박수갈채를 보냈고, 이튿날 신문에 "이는 존경을 받아 마땅한 오케스트라이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2002년 말, 리 신차오는 CNSO와 대만의 타이페이 국립콘서트홀에서 역사적인 데뷔 공연을 가졌다. 엄청난 환호를 받은 리 신차오는 2003년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초청 공연의 지휘를 위해 다시 대만을 찾았다. 그는 공연이 끝난 후 로스트로포비치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지휘자, 신은 그에게 재능을 주었다"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2006년에는 CNSO와 한국과 미국 순회연주회를 가졌다.미국 연주 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으로부터

"힘이 넘치는 지휘자 리 신차오는 그들만의 어법과 표현력으로 설득하면서도 여전히 서구 스타일을 놓지않고 있다" "리 신차오는 고향에서 가져온 모든 것으로 훌륭히 적응하는 지휘자임을 증명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6일 가진 취임연주회에서 부산음악애호가들은 80여분의 공연이 끝난 뒤 일곱 차례의 커튼콜로 신임 수석지휘자를 뜨겁게 환영했다. 리 신차오는 이후 매 공연 마다 다양한 기획과 그만의 해석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오페라 무대에 관심이 많은 리 신차오는 지난해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처음으로 오페라 in 콘서트 '토스카'를 기획, 호평을 받았다. 오페라 in 콘서트 '토스카'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연극적 흐름에 필요한 소품이나 의상을 모두 갖추고 유명 성악가들과 시립합창단, 동래초등학교 '노래하는 아해들'과 한 편의 완성된 오페라를 선사했다. 리 신차오는 2010년 오페라 in 콘서트 두 번째 무대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계획하고 있다.

음악, 민족혼을 담다

4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석지휘자 이동신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연

피아니스트 배수정

작곡가 최석태

청소년들의 음악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해 주제가 있는 다양한 무대를 열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0년 첫 정기연주회가 4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무대는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음악에 담았던 19세기 후반 서양 음악의 주사조인 '국민주의 음악'을 선곡, 청소년들에게 체코와 폴란드, 러시아, 한국 등의 민족혼을 담은 음악들을 한자리에서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연과 피아니스트 배수정이 협연자로 부산 청소년들과 만난다.

첫 무대는 체코 국민주의 음악의 선구자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중 '3개의 춤곡'으로 연다. 이 작품은 '팔려간 신부'에서 춤곡들을 발췌하여 연주회용으로 모은 곡으로 제 1곡 폴카는 흥겨운 2/4박, 제 2곡 푸리안트는 체코지방의 경쾌한 민속춤곡, 제 3곡 코메디안 춤은 경쾌하며 코믹한 내용으로 짜인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음악인 '아리랑'을 주제로 작곡된 김한기곡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합주를 위한 협주곡-아리랑'과 최석태 피아노 협주곡 '아리랑'.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합주를 위한 협주곡-아리랑'은 김한기가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교수에게 헌정한 곡이다.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아리랑'의 주선율이 독주 바이올린과 합주부가 연주해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듯 주고 받는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위촉으로 작곡된 최석태 '아리랑'은 그동안 피아노 협주곡 형식으로 만들어진 아리랑 곡이 없었던 것에 착안해 Piano Concert 형식을 빌려 작곡되었다. 제 1주제는 민요선율 2마디를 함축해 오케스트라 반주 위에 제시되고, 2주제는 피아노의 화려한 아르페지오와 함께 2대의 클라리넷에 의해 아리랑 선율이 연주된다. 작곡가 최석태는 한국 · 터키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터키 안탈리아 국립교향악단 위촉곡 '아리랑 판타지 2007' 터키 초연, 2008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독일연주를 기념하는 '페스티발 미사' 독일 세계 초연무대 등을 가진 바 있다.

2부 무대는 폴란드의 작곡가 비에냐프스키 '전설', 러시아의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 '술탄 황제 이야기' 모음곡으로 국민 음악여행을 떠난다. 문주연이 협연하는 '전설'은 제목처럼 아득한 중세기의 옛이야기를 회상하는 듯 로맨틱하고 감미로운 곡이다. 림스키-코르사코프 '술탄 황제 이야기' 모음곡은 푸쉬킨의 원작에 기초하여 베르스키가 쓴 대본을 바탕으로 작곡된 4막 6장의 오페라로, 작곡가 본인이 1막, 2막, 4막의 전주곡에서 발췌하여 3악장의 모음곡을 엮었다.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BBB I (Beethoven & Brahms in Busan)

4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의욕적으로 기획한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I이 4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프로젝트는 지난 해 6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부산활동을 시작한 리 신차오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무대로, 교향 음악의 정수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과 브람스의 작품을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의 첫 무대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와 브람스 특유의 묵직하고 우수에 찬 정서가 매력적인 교향곡 제 1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는 로망 롤랑이 '걸작의 숲'이라고 부른 만큼 베토벤 제 2기의 정점을 형성한 명곡이다. 곡의 웅혼하고 장대한 아름다움은 '황제'라는 제목과 어울리지만, 이 이름은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 장대한 곡상과 호탕한 구성이 마치 왕의 품격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속칭이다. 베토벤의 5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여성적이고 우아한 제 4번과 아울러 널리 애주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진선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베를린 국립음대(UdK)와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Hans Leygraf 사사)을 최우수로 졸업한 김진선은 독일 연방 청소년 콩쿠르(Jugend musiziert) 피아노 솔로, 듀오 및 클래식 특별평가 각 부문 1위와 아르투어 슈나벨 콩쿠르 3위, Steinway 대학생 콩쿠르 특별상, Alice-Samter 실내악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곡인 브람스 교향곡 제 1번은 전체적으로 베토벤풍의 인상이 강한데, 특히 짧은 기본 동기를 구사하는 제 1악장은 '운명' 제 1악장을, 끝악장의 주제는 '합창'의 피날레 주제를 연상케해 한스 폰 뷜로는 '불멸의 9개'에 이어지는 제 10교향곡이라고 일컬었다. 그런 만큼 브람스답지 않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브람스의 고향인 북유럽의 함부르크적인 묵직한 정서가 바탕을 이루고 있으므로 결코 베토벤의 아류물이라고만 할 수 없다. 더욱이 표제적인 교향곡이 많은 낭만파 시대에 쓴 기악으로서 고전 교향곡의 전통을 유지한 것은 브람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작법이라는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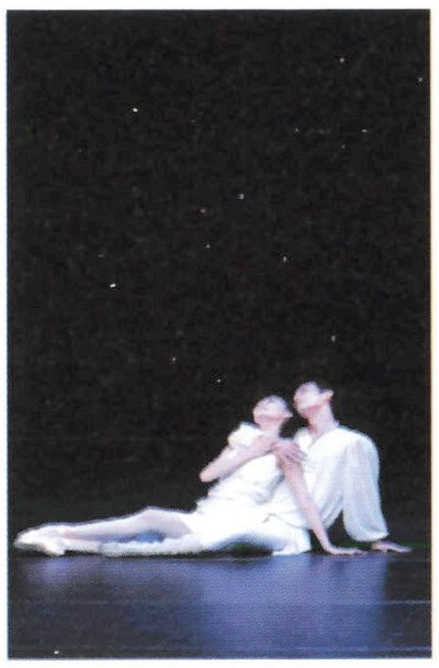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피아니스트 김진선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9월 1일 이전 가입한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사랑의 세레나데

4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이원국 발레단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이원국이 그가 이끄는 무용단과 함께 4월 17일 부산을 찾는다. 남성발레의 교과서, 국보급 발레리노, 발레 대중화의 선구자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우는 이원국은 국내 남성발레가 이원국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국내 발레계에 이정표를 세운 신화적 존재이다.

중앙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한 이원국은 1988년 동아무용콩쿠르 대상을 시작으로 아시아국제콩쿠르 은상(1989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파이널리스트(1995년), 당쇠르 노브르상(1997년) 등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발레리노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1993년~1996년)과 국립발레단(1996년~2004년)의 수석무용수로 활동한 이원국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발레의 고장 러시아 키로프국립발레단과 루마니아 국립발레단 객원무용수로 멋진 공연을 펼쳐 한국발레의 위상을 한껏 더높였다.

지난 2004년 국립발레단에서 은퇴한 이원국은 그 해 11월 이원국발레단을 창단해 해설이 있는 발레, 월요일 상설발레, 청소년과 함께하는 발레 등 다양한 기획공연을 통해 발레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명작 발레의 클라이막스를 갈라형식으로 구성한 이번 무대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에너지가 용솟음치는 이원국의 대표작 '스파르타쿠스' 중 전쟁터에 나가는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아내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 '아다지오', 호두까기인형, 카르멘, 해적 등 남녀의 사랑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한 7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호두까기 인형 2막 중 마법에서 풀려난 왕자와 사랑에 빠지는 마리의 2인무 'Grand Pas de Deux'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서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주옥같은 대표곡들에 맞추어 관능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카르멘과 스페인 집시를 그려낸 이원국 안무, 연출의 '카르멘 1, 2, 3'과 낭만파 시인 바이런의 시를 바탕으로 한 '해적' 중 2인무, 파우스트 중 4막 7장에 나오는 '환락의 밤'을 환상적인 춤으로 그려낸 '발푸르기스의 밤', 그리고 피아졸라의 음악에 아르헨티나의 정열적인 탱고춤을 발레로 새롭게 탄생시킨 이원국 안무 '탱고'가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 무대는 돈키호테의 무용담인 원작 소설과 달리 선술집 딸 키트리와 이발사 바질의 사랑이야기로 재탄생한 대표적인 희극발레인 '돈키호테' 중에서 가장 유명한 3막의 '결혼식 Pas de Deux'를 선보인다.

- 관람료 1층 30,000원 · 2층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앙상블 예술가곡

4월 22일 목요일 오후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석지휘자 김강규

3월 우리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오페라 음악극 '상처 입은 영혼-이화이야기'를 선보인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대중들의 귀에 익은 아름다운 가곡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김강규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자연과 사랑을 노래하는 산뜻하고 깔끔한 곡들을 선곡, 편안하고 아름다운 가곡을 합창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이다. 전반부에서는 '모음곡'으로 편곡되어진 가곡을 우리나라 가곡과 이탈리아 가곡으로 나뉘어 연주하고 후반부에서는 영 · 미 언어권과 독일어권, 이탈리아어권 가곡을 남성과 여성의 소리, 각 음역간의 화음을 조화롭게 구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첫 무대는 CM송 메들리의 편곡자로 잘 알려진 안현순 편곡으로 피가로의 결혼 서곡, 봄, 봄맞이 가자, 봄이 오는 길, 봄이 왔네 등을 편곡한 '봄노래 모음곡'으로 앙상블 무대를 연다. 두 번째 앙상블은 우리 귀에 익은 '이탈리아 가곡 모음곡'. 그동안 성악가들의 독창무대에서 만날 수 있던 '오, 나의 사랑(Caro mio ben)' '입맞춤(Il Bacio)' '아침의 노래(Mattinata)' 등 다양한 이탈리아 가곡이 모음곡으로 편곡되어 연주된다.

세 번째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하프주자로 활동 중인 하피스트 김영립의 특별무대로 아우구스틴 라라(Agustin Lara)의 '그라나다(Granada)'를 비롯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피아니스트이며, 가수이기도 했던 아우구스틴 라라(1900~1970, Mexican)가 스페인 그라나다(Granada) 지방에 대한 연민으로 작곡한 '그라나다(Granada)'는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러 널리 알려진 곡이다.

영어권, 독일어권, 이탈리아어권의 3개 대륙의 예술가곡을 들려주는 후반부 무대에서는 영미 가곡 '샐리 가든(Down by the Sally Gardens, 아일랜드)', '칼레도니아의 노래(Caledonian's Air, 스코틀랜드)', '로몬드 호수(Loch Lomond, 스코틀랜드)', 독일 가곡 '아침(Morgen!, R.Strauss)' '영원한 사랑(Von ewiger Liebe, J.Brahms)', 이탈리아 가곡 '토스티의 세레나데(La Serenata, F.P.Tosti)' '최후의 노래(L'Ultima Canzone, F.P.Tosti)' '후니쿨리, 후니쿨라(Funiculi, Funicula, L.Denza)'를 선곡, 각국의 언어가 주는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9월 1일 이전 가입한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2회 정기연주회

4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수석지휘자 김철호

화사한 새봄의 희망을 들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2회 정기연주회가 4월 22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4월부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공연장소를 옮겨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평소 거리가 멀어 부산문화회관 공연장을 자주 찾지 못했던 금정구, 동래구 지역 주민들에게 신명넘치는 국악선율로 새봄의 흥취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는 지난 3월 17일 취임연주회를 통해 부산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열린다. 작곡자, 연주자, 지휘자로 우리 국악계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지휘자 김철호는 청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상임지휘자,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휘자를 역임하고 풍부한 감수성과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악계에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박범훈 곡 '춘무'를 비롯해 봄의 화사함을 담은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봄바람에 취해 '춘흥(春興)'을 표현한 박범훈 곡 '춘무'는 피리가 묘사하는 개구리 소리, 대아쟁이 들려주는 소 울음 등 산과 들의 봄의 정경을 국악의 신명으로 그려낸 곡이다.

• 관람료 초대(초대권 배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금정문화회관)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2010 조선통신사축제

역사와 함께! 세계와 함께!

4월 30일(금)-5월 2일(일) 용두산공원 외 부산 곳곳

400여년 전 조선통신사의 평화교류 정신을 21세기에 되살리기 위한 부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인 '2010 조선통신사축제'가 4월 30일부터 사흘간 부산 곳곳에서 펼쳐진다.

조선통신사는 조선후기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으로, 당시 조선 최고의 문인과 예능인들이 조선의 앞선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면서 한·일 문화교류의 첨병역할을 담당했다. '역사와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10 조선통신사축제'는 '조선통신사' 재현을 통해 조선통신사의 평화교류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축제 첫날인 4월 30일 저녁 7시 동구 영가대에서는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 일행의 무사안녕을 바다의 신에게 기원하는 '해신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5월 1일 오후 6시 용두산공원 특설무대에서는 '한류음악(OST)과 일본춤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조선통신사 한·일 교류의 밤'이 개최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양손에 나루코(짝짝이)를 쥐고 추는 일본 전통공연 '요사코이 오도리' 6개팀과 부산의 정상급 밴드와 국악팀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조선통신사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조선통신사 퍼레이드'는 5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용두산공원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부산시민을 비롯한 일본 예술단 등 1,500여명이 참가하는 '조선통신사축제 퍼레이드'는 선도행렬, 조선통신사행렬, 어서오세요 일본행렬, 다이나믹 부산행렬, 2010 평화의 북소리행렬 순으로 꾸며진다. '부산의 사계'를 컨셉으로 한 '다이나믹 부산행렬'은 춤과 음악,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밖에 '조선통신사와 한·일문화교류'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0 조선통신사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첫날인 4월 30일 오후 1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며, 조선통신사 역사체험존과 한·일 놀이체험존, 푸드체험존으로 꾸며지는 조선통신사 페어는 축제기간인 1일과 2일 용두산미술전시관에서 운영된다.

2010 조선통신사 축제에 이어 하반기에는 연고도시인 일본 쓰마마(8월 7일~8일), 시모노세키(8월 21일~22일), 도쿄(10월 23일~24일)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과 다양한 한·일 문화교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문 의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www.tongsinsa.com, 888-6965, 816-3371)

제 7회 2010 부산국제연극제

5월1일(토)~5월 10일(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경성대 콘서트홀,
용천지랄소극장 등 부산시내 공연장

부산을 대표하는 봄 예술 축제 '부산국제연극제' 2010년 축제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부산시내 주요공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매년 연극의 새로운 경향과 흐름을 알아보는 국내 유일의 콘셉트 연극제로 각광받아온 부산국제연극제의 2010년 콘셉트는 '연극의 경계선(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re)'. 일반적인 연극 공연에만 길들여져 있는 관객들에게 현대연극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흐름인 장르의 통합, 또는 해체의 경향을 '연극의 경계선(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re)'을 통해 보여준다.

올해는 장르의 해체를 통해 감동과 재미를 주는 국내외 27개 작품을 초청, 새로운 연극의 재미를 선사한다. 전체 작품은 콘셉트에 맞는 작품으로 구성한 'BIPAF Main Stage', 콘셉트와 형식, 장르에 제한 없이 작품성과 탁월한 기량을 갖춘 작품을 초청한 'BIPAF Open Stage', BIPAF Zone, 관객과의 대화, 워크샵 , BIPAF 펀드 등 연극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BIPAF Together' 3개부분으로 나누어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개막작으로는 모던 댄스와 블랙 코미디의 절묘한 만남이 돋보이는 프랑스 Nasser Martin-Gousset Company의 〈COMEDY〉가, 폐막작으로는 영상의 영화적 기법과 그림자극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이슬람 수학자〉가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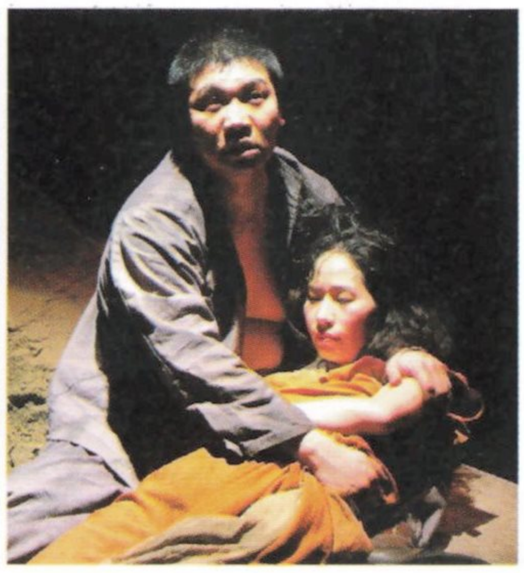
개막작 〈COMEDY〉는 다이아몬드라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대변하는 오브제와 인간의 원초적인 육체적 욕망이 살인 사건과 연결되어 심각한 드라마를 구성하며, 배우들 각각의 캐릭터는 다시 그 드라마의 심각성을 가볍게도, 무겁게도 만들고 또는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만든다. 한국인들이 즐기고 사랑하는 Dave Brubeck, Paul Desmond, Howard Brubeck, Henry Mancini, Michel Legrand의 음악이 라이브 속에 관객들의 큰 웃음을 자아낸다.

폐막작 〈이슬람 수학자〉는 브라질 작가 말바 타한의 수학소설 〈The Man Who Counted〉(국내 번역소설 셈도사 베레미즈의 모험)를 각색하여 무대화한 작품이다. 대서사시적 규모의 스토리와 난해한 수학 공식, 도형에 대한 이미지들을 명쾌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이 작품은 상상력 넘치는 영상의 힘과 그림자극이 박진감을 더해준다. 'BIPAF Main'에는 개막작 〈COMEDY〉, 폐막작 극단 수레무대의 〈이슬람의 수학자〉 외 한국 트러스트 무용단 〈세 번째 전환〉, 일본 Team-Iimuro의 〈Slownin Waltz〉, 이탈리아 Teatro Persona의 〈Treatise of Mannequins〉 등 8개 작품이 소개된다.

'BIPAF Open Stage'에서는 한국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아름다운 살인자! 보이첵〉, 그룹 포차의 〈추격자〉, 극단 나무의 〈얘들아 같이 놀자〉, 예술마당 살판의 〈학수고대〉, 대만 The Puppet & Its Double Theater의 〈I am another yourself〉, 프랑스 Productions Illimitées의 〈The Shadow Orchestra〉 등 7개 작품이

개막작 프랑스 'COMEDY'

대만 'I am another yourself'


한국 '아름다운 살인자! 보이첵'

펼쳐진다. 올해 처음으로 초청된 대만의 The Puppet & Its Double Theater의 인형극 〈I am another yourself〉는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가족극이다. 인형들의 섬세하고 세련된 움직임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I am another yourself〉는 성인을 위한 인형 동화극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인형 조작자들은 놀랍도록 섬세한 움직임과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 잡는다. 이 작품은 불완전하지만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며 관객 스스로가 그 등장인물을 보여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를 상상으로 쓰게 만든다. 'The Puppet & Its Double Theater'는 2002년 최우수 공연 10개 작품, 대만 타이신 예술상을 수상하고 헝가리 인터네셔널 퍼핏 인 마이 포켓 페스티벌, 인도 인터네셔널 이샤라 퍼핏 페스티벌, 벨기에 인터네셔널 마임 스퀘어 페스티벌, 프랑스 아비뇽 오프 등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그 외 어린이날인 5월 5일과 6일 프랑스 Productions Illimitées의 〈The Shadow Orchestra〉와 한국 극단 나무의 〈얘들아 같이 놀자〉가 가족극으로 펼쳐진다. 〈The Shadow Orchestra〉는 2005년부터 4년간 프랑스를 순회하며 450회 이상 공연된 화제작이다. 독학으로 마술을 배운 마술사 사비에 몰티메가 놓칠 수 없는 마술 같고, 황홀한 세계를 펼친다. 〈얘들아 같이 놀자〉는 폐품 놀이극으로 신문지를 활용한 64가지 상황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시민과 관객, 연극인이 어울릴 수 있는 'BIPAF Together'에서는 연극제의 대중화와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10분 연극제, 부대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올해 '10분 연극제'는 청소년부, 대학부, 일반부로 세분화하여 순수 아마추어뿐 아니라 연극동아리, 연극전공자, 전문배우, 해외팀 등이 참여한다. 그 외 연극 전문인들의 공연기량 향상을 위한 'BIPAF 워크샵', 관객과 공연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 시간인 '관객과의 대화', 부산 시내 거리에서 초청작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거리 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개막작, 폐막작은 1층 25,000원 · 2층 20,000원/5월 3일~4일 BIPAF MAIN 열혈청년예술단-로미오와줄리엣은 무료)
• 문 의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www.bipaf.org)

모두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부산다운 축제에 주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이 문 섭 집행위원장

1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맞이축제'를 시작으로 사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 부산. 축제의 열기가 가득한 부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의 도시다. 부산의 주요 축제를 이끌고 부산지역축제를 평가하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이문섭 신임집행위원장을 선임, 2010년 축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산과 바다, 강이 있는 아름다운 부산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부산다운 축제, 부산의 개성,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축제를 통해 부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일보 경제, 사회, 문화부장, 문화사업국장, 주필 등을 역임한 이문섭 집행위원장은 업무의 특성

상 그동안 부산의 축제에 대해 객관적, 비판자적인 입장을 가져왔다. 축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부산 축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문섭 집행위원장의 객관적인 시각, 새로운 도전에 기대가 많다.

"축제를 바라보는 부산의 시민의식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어깨가 무겁죠. 축제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2010년 제 3회 부산항축제(5.28~5.30,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 제 15회 부산바다축제(8.1~8.9, 6개 해수욕장), 제 11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8.6~8.8, 다대포해수욕장), 제 6회 부산불꽃축제(10.29~10.30, 광안리해수욕장), 2011 해맞이 부산축제(2010.12.31~ 2011.1.1, 다대포해수욕장, 용두산공원, 해운대해수욕장)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 6회째인 부산불꽃축제는 세계 대표 불꽃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2,200명의 일본인 관광객유치에 성공한 만큼 올해는 중국과 동남아 등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산의 브랜드를 널리 알린다는 생각이다. 또 해외 유명 불꽃축제와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의 불꽃과 부산의 정체성을 살린 특화된 불꽃 연출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지역축제평가도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다.

"부산은 바다를 100% 활용한 특화된 축제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지역 축제가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한데 앞으로 유사한 성격은 통폐합을 유도하여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 59개였던 부산지역 축제가 2008년 66개로 증가했지만 2009년에는 47개로 줄었다. 올해는 40개로 예상하고 있다.

이문섭 집행위원장은 우리 축제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선임 후 짧은 시간이지만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업무 향상, 기획력 보강을 위해 다른 지역 축제에 대한 비교 검토를 제안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 축제를 많이 보고 우리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는 그는 조직위원회 가족들과 다른 지역의 축제를 검토하며 공부에 한창이다. 이문섭 집행위원장은 지역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보령 머드 축제와 함평 나비축제를 성공한 축제의 좋은 모델로 꼽았다.

집행위원장 선임 후 개인적으로 태국 여행길에 올랐던 그는 일반적인 관광코스가 아닌 캬오산로드, 수완룸야시장, 짜뚜작 주말시장 등을 다니며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조직위원회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참가한 후 보고서를 제출,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축제는 축제를 꾸리는 사람들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의 축제"라고 강조하는 이문섭 집행위원장. 시민을 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그의 새로운 도전에 2010년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글, 사진/백경옥)

노란 수선화에게서 사랑을 배우다

정일근 _ 시인

사진/정일근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구름 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굳이, 은현리의 4월이 아니어도 별처럼 피어나는 목련꽃 아래에 서면 목월(木月) 선생의 노래 '4월의 편지'가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고향에서 멀리 떠나와서 이름 없는 작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난다는 이 물기 젖은 구절에서 항상 휘파람의 가락을 놓치고 맙니다. 그 나그네의 심정이 내 마음 같아 울컥 슬픔이 복받쳐 오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과 꽃샘잎샘으로 이어지던 긴 추위 속에서 미라처럼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풀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립니다. 얼었던 강이 풀리고 다시 유유히 흐르면서 그 나그네는 인생이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4월을 '얼음이 풀리는 달'(히다차 족)이라고 하고,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검은발 족)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나의 4월은 편지를 쓰고 싶어지는 달입니다. 겨우내, 오랫동안 안부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유리 펜에 녹색 잉크를 꼭꼭 찍어 호수 같은 내 마음을 다 풀어낼 때까지 길고 긴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은현리 꽃밭에는 노란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푸른 줄기 속에 비밀처럼 노란 꽃을 납작하게 숨기고 있다가 마술처럼 활짝 피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란 수선화는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것보다 여러 송이가 어울려 피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홀로 피는 꽃,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하마 제주의 수선화들은 벌써 져버렸을 것입니다. 그윽하기야 하얀 제주 수선화가 으뜸이지만 육지를 건너와서는 피는 꽃이 아니기에 노란 수선화를 심고 키우지만 이 꽃에게 슬픈 노래와 슬픈 시가 숨어 있습니다.

꽃대에 비해 꽃이 너무 큰, '가분수' 같은 꽃이어서 처음엔 눈이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노란 수선화가 해바라기처럼 해를 따라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머리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해를 따라가는 꽃을 보며 마음 밑바닥이 짠해졌습니다. 그때 번쩍하며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꽃이 마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나 꽃이나 자기와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건 스스로 초라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 뿐인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닮은 꽃이어서 정이 들었는데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꽃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위대했습니다. 꽃은 기다림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사람은 그냥 하루쯤 의자에 앉아 기다릴 뿐이었지만 꽃은 끝까지 '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수선화는 시들어가면서까지 해를 따라 돌고 있었습니다. 말라 바삭바삭 바스라지면서까지 해를 따라 돌며 최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꽃이 다 지고서야 노란 수선화의 꽃말이 '사랑에 답하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 당신은 노란 수선화 같은 사랑 해보았습니까? 노란 수선화처럼 기다려보았습니까? 4월입니다. 피는 꽃도 좋지만 가끔 지는 꽃을 세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4월의 편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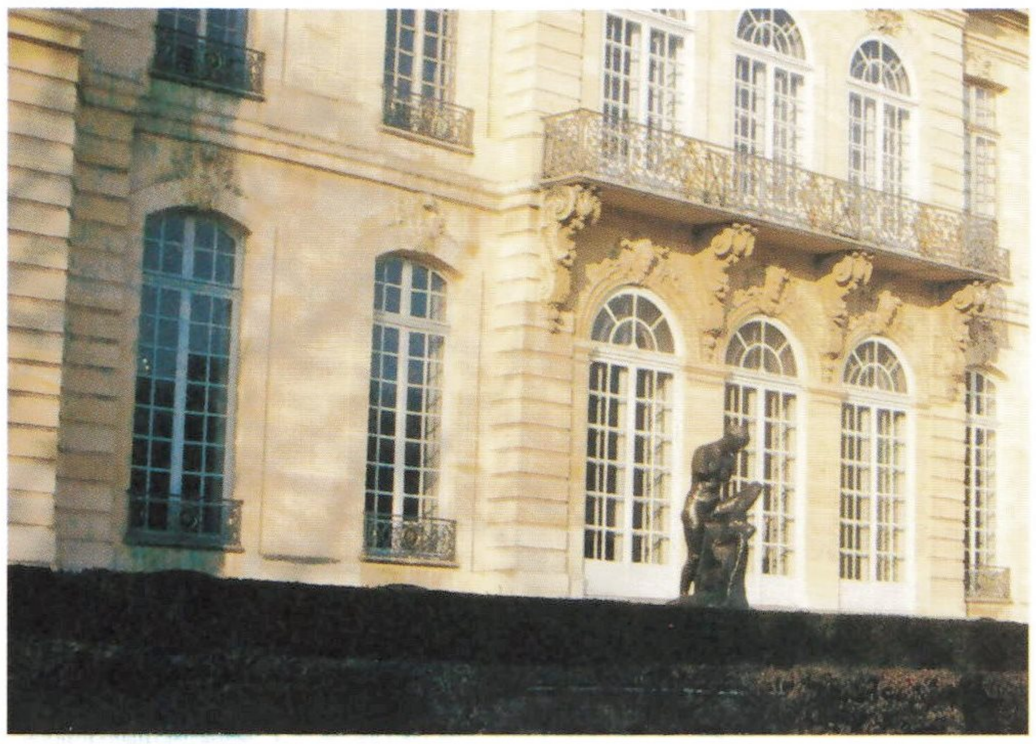
이재걸 _ 프랑스 소로본대학 예술사 박사과정

〈지옥의 문〉

오랜만에 파리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았다. 미운 정 고운 정 다든 파리에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되는 순간이다. 한국에 자주 가지 못하는 터라 대사관에만 와도 마음이 설렌다. 이래저래 필요했던 서류들을 다 처리하고 대사관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온다. 다시 파리의 한 외국인이 된다. 문 한 짝을 사이에 두고 난 또 다른 모습의 나와 대면한다.

이왕 이렇게 감상적으로 된 김에 대사관 바로 옆의 로댕박물관을 오랜만에 다시 찾았다. 파리의 센느강변(VARENNE)가에 위치한 로댕의 작품만을 위한 박물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18세기 건축물 중 하나로 로댕은 만년에 이곳에서 작업을 했다. 죽기 전 그의 모든 작품은 국가에 헌정되었고 현재는 프랑스정부가 이 건물과 작품들을 관리하고 있다. 대사관문에 대한 짤막한 단상이 로댕의 〈지옥의 문〉을 떠오르게 해서일까? 삼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필연적으로 뻔한 우연의 일치처럼….

약간 머쓱하다. 여전히 학생의 신분으로 공짜 표를 받으니 더욱 그러하다. 입구에 들어섰다. 늘 느끼는 바이지만 프랑스의 박물관들은 좀 특별하다. 억지스럽지 않는 화려함, 지루하



로댕박물관 후면

로댕박물관 정원

지 않는 단순함, 이 두 가지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온 장인들의 디자인 감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파리에서 출생한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은 프랑스가 배출한 근대조각의 거장이다. 그로부터 진정한 근현대 조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정형화된 조각양식을 철저히 배제한 로댕은 낭만주의적 운동감과 과감한 생략이나 극적 과장을 통한 미묘한 생명력의 표현 등으로 근대인간형의 새로운 양상을 구축해냈다.

그의 조각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그 시대의 다른 인상주의자들처럼 깔끔하게 마무리된 형상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완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방법은 자연스러움이었다. 거칠게 깎다 만 듯한 대리석의 일부, 이제 막 작업이 시작된 듯한 구체적이지 않는 인물의 표정, 그리고 주물공정상에서 나타난 흔적들을 그대로 놔두기 등을 통해 틀에 갇힌 작품 완성의 의미를 포기하고 관객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 시대의 적잖은 비평가들에게 예술가의 게으름으로 치부되기도 했던 이 '미완의 완성'은 역설적으로 오늘날 로댕의 작품을 자연스러움이라는 더욱 고차원적인 완성의 의미로 남게 해주었다. 아무튼, 건물 앞 정원에 자리를 잡은 〈지옥의 문〉이 눈에 들어왔다.

정부의 위촉으로 〈파리장식미술 박물관〉의 대형 청동문을 위해 제작된 이 작품은 수많은 나체군상으로 이루어진 6.50M 높이의 기념비적 조각이다. 실제로 실현되지 못한 이 〈지옥의 문〉 계획은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 〈아담과 이브〉 등 수많은 명작들의 모태가 되어주었다. 이 청동문안에서 로댕의 유명한 작품들을 찾아보는 것은 흥미롭다. 물론 〈지옥의 문〉안에서의 인물들은 독립되어 개별화된 작품보다 훨씬 작은 크기이다.

당시 로댕은 자신의 영감의 원천을 미켈란젤로, 고딕예술, 단테, 보들레르 등에서 얻었는데 이 작품은 바로 단테의 〈신곡〉 1부 〈지옥 편〉에서 그 동기를 찾은 것이다. 〈신곡〉에서 발췌한 186개의 고부조로 이루어진 나체군상은 인간의 비극을 거칠면서 역동적인 로댕의 손길로 훌륭히 재현되었다. 거대한 청동 문에 붙어 있는 각 인물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하다. 그 생생함이 초봄의 수줍은 햇살을 더욱 눈부시게 한다.

이제 박물관 실내로 들어가 본다. 평일 오후녘이라 그런지 지난번만큼 관객들이 많지는 않다. 북적거리지 않는 미술관은 그 얼마나 여유롭고 즐거운가! 오후가 되면서 날씨는 더욱 맑아지고 겨우내 꽉 막혀 있던 내 머릿속도 맑아지는 듯하다.

〈지옥의 문〉 상단부에서도 볼 수 있는 3인의 나체군상 〈그림자OMBRES〉를 감상하는 프랑스 여고생. 수업이 일찍 끝나 박물관을 찾았다고 한다.

고풍스러운 로댕박물관 내부 모습. 한 노부부가 〈청동시대〉를 감상하고 있다.

로댕박물관은 원래부터 파리의 BIRON공의 저택이었던 이유로 타 미술전시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커다란 창문들을 통해 인정사정 없이 마구 쏟아지는 자연광들은 누가 보아도 회화작품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로댕의 조각 작품들과는 큰 다툼이 없다. 오히려 인공조명에만 익숙해져 있던 로댕의 조각품들을 시시각각 바뀌는 하늘의 변덕에 맡겨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경험이다. 그래서인가, 깎다만 대리석에 남은 끌과 정의 자국들은 더욱 예리해 보였고 미끈하게 잘 다듬어진 여인들의 피부에는 싱그러운 윤기가 더해진다. 이곳에서는 무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냥 '놔둔' 자연의 햇살도 작품 일부로 살아 숨쉰다.

한국의 대학시절 흠모해 마지 않았던 한 소녀상을 찾았다. 테라코타(구운흙이라는 뜻으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낸 조소류를 일컫는다. 보통은 적갈색 또는 황색을 띤다)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로댕 작품 중 특이하게 18세기풍의 기호가 한껏 가미된 작품이다. 화려한 꽃 장식 모자와 의상에 숨겨져 있는 사춘기 소녀의 대상 없는 불안감과 열정을 동시에 훌륭히 표현해낸 이 작품은 감정의 선이 굵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섬세하며 자극적이다.

하지만 로댕 특유의 절제되어 응축된 역동성을 잃지는 않았다. 화려한 장식이 주는 시각적 유희와 망설이는 듯 구체적이지 않는 소녀의 표정은 우수에 찬 듯하나 힘차고, 정적이기는 하나 변화무쌍하다. 작가의 집중력과 고뇌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층 전시실로 향한다. 먼저 로댕의 투박하지만 성실한 손길이 묻어있는 작업구상용 모형들(MAQUETTES)이 눈에 띈다. 소조나 조각의 본 작업 전에 실행하는 작은 크기의 이 모형들은 이미 작가의 의도와 조형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작품들을 위해 각기 따로 제작된 모형들이지만 모두다 로댕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에서 각자의 소리를 충실히 내고 있는 듯 하다.

삼사십 개의 작은 모형들을 한눈에 보니 로댕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렇게 다가온 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자연스러움이다. 군더더기 없는, 그래서 강함과 부드러움 모

꽃 장식 모자를 쓴 소녀
〈JEUNNE FILLE AU CHAPEAU FLEURI〉. 1865.

로댕의 작업구상용 〈MAQUETTES〉

두 순수상태 그대로인… 작가의 열정이 강하게 묻어 나오는 각 모형의 형태와 질감 그리고 인상들… 감동적이다. 다시 찾은 로댕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좋은 영화는 두세 번째 볼 때가 가장 좋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니지 않은가.

정원의 야외조각들과 이층으로 구성된 넓은 실내전시실을 다 둘러보고 밖으로 나온다. 머릿속이 로댕의 조각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오히려 더 가볍고 맑아진 느낌이다. 기분이 좋다. 오랜만이다.

난 사실 작품이 주는 예술적 카타르시스보다는 작품의 의도 자체를, 혹은 그 과정에 대한 분석과 비평에만 익숙했던 것은 아닌가? 이것도 직업병이라면 그럴 것이다. 반성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

자연스럽다는 말에 관해 생각해본다. 어떠한 의지나 목적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저 당연한 이치라고 정의할 수 밖에 없는 명확성. 그래서 자연을 닮은 자연스러운 어떤 것은 혼란스럽지도, 가볍지도, 짧지도, 우스꽝스럽지도 않다. 이 간단한 자연의 명확성 안에서 보호받을 때, 사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가. 그렇게 자연의 일원이 되고 그 안에서 안심하며 숨 쉴 때 삶의 단편들은-그것들이 희극적이든 또는 비극적이든 간에-명확한 긍정성을 획득할 것이다.

꾸며진 것들이 많은 시대이다. 인공적인 것들이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극복의 의지 없이 자연스러운 것들을 조롱하며 스스로 소비시킨다. 이 극복의 의지가 예술의 근본적 동기이다. 그래서 이 의지를 포기한 문화는 유치함으로 치닫는 것이다.

화려한 꽃 장식 모자 아래에서 상념에 빠진 소녀의 얼굴이 다시 떠 오른다.

영화 '피아니스트'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2002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피아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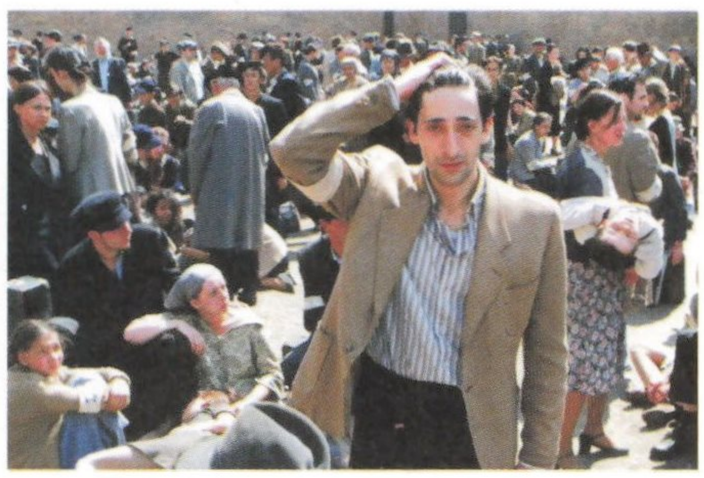
〈쉰들러 리스트〉는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을 다룬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천여 명의 유태인을 구출한 독일인 사업가의 이야기를 다룬 〈쉰들러 리스트〉는 스필버그 감독 특유의 감상적 휴머니즘의 시각으로 홀로코스트를 조명하여 그 해 아카데미상 7개 부분을 석권하며 그에게 생애 최초의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겼다.

원래 〈쉰들러 리스트〉는 스필버그가 홀로코스트를 실제로 경험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게 연출을 제안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폴란스키는 어머니가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자신의 개인사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2002년, 폴란스키 감독은 한 예술가의 눈을 통해 지극히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한 시각으로 유태인 학살의 현장과 전쟁의 비참함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그 작품이 2002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빛나는 〈피아니스트〉이다. 실존했던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의 자서전 'Death of a City'에 기반을 둔 이 작품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독일군의 잔혹성을 고발한 영화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스필만은 라디오방송국에서 일하는 성공한 피아니스트였다. 하지만 전쟁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가족, 친구, 피아노,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까지. 그리고 인간의 몰골이라 할 수 없는 모습으로 폐허에서 근근이 살아간다. 피아니스트 스필만은 더 이상 없었다.

이 작품은 그동안 홀로코스트를 다룬 그 어떤 영화보다도 사실적이며 감정이입에 충실하다. 주인공이 독일군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장면은 웬만한 스릴러물에 버금갈



영화 피아니스트는 쇼팽의 야상곡, 발라드 1번,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베토벤의 월광소나타 등 주옥같은 명곡이 등장한다.

정도의 긴장감을 선사한다. 〈피아니스트〉는 나치의 만행을 여과 없이 그려내긴 하지만 영화가 주목한 건 '스필만의 생존' 그 자체다. 어쩌면 유년시절 홀로코스트의 악몽에서 보낸 폴란스키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화의 디테일은 매우 섬세하면서도 풍부하다.

이에 반해 바르샤바 유대인 거주 지역인 게토에서의 삶에 대한 묘사는 마치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듯 소름끼칠 정도로 차분한 시각을 유지한다. 굶주림과 질병, 무관심과 죽음이 지배하는 게토의 현실은 노파의 음식을 빼앗다가 바닥에 엎어진 배급 식량을 손으로 긁어 먹는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 적나라하게 표현된다. 폐허가 된 거리를 스필만이 홀로 걷는 장면은 〈피아니스트〉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1,400명의 경쟁자를 뚫고 주연을 맡은 에드리언 브로디는 〈피아니스트〉를 통해 30세의 나이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최연소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그는 영양실조에 걸린 스필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두 개의 삶은 계란과 녹차로 끼니를 때워가며 6주일 만에 14Kg의 몸무게를 감량했다. 또한 외부와 단절된 캐릭터의 상실감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없앴고, 차도 팔았으며, 심지어 TV도 시청하지 않았다. 스필만이 경험한 공포까지 느낄 수는 없었겠지만 그는 연기로 그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배고픔, 추위, 질병, 공포와 싸우면서 원시인이 되어버린 스필만의 모습에서 전쟁의 끔찍함을 느낄 수 있다.

피아니스트의 삶을 다룬 영화이니 만큼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독일군의 포격을 받는 와중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스필만이 연주하던 쇼팽의 '야상곡'이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등 주옥같은 명곡들이 사용되었으며, 무엇보다 독일군 장교 앞에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는 장면은 영화의 절정을 이루는 명장면이다.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쇼팽의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는 음악처럼 화려한 해피엔딩이지만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중첩되어 마냥 행복하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피아니스트〉는 홀로코스트를 조명한 수많은 영화들 중 그 표현이나 주제의 전개에 있어서도 탁월하다. 약간은 진부한 유태인 학살의 소재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격조있게 그려낸 폴란스키의 연출력은 2003년 아카데미 감독상과 각색상, 남우주연상으로 보상받는다.

스필만이 직접 쓴 자서전은 〈피아니스트〉란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어 있다. 화려한 문장력은 아니지만 담담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한다. 신파로 흐르지도 않고 독일인에 대한 증오심도 직접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화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다.

건반 위의 예술가

노경원 _ 피아니스트, 인제대학교 교수, 김해국제음악제 예술감독

Jean-Baptiste-Auguste Clésinger 가 쇼팽 사망 직후 본뜬 쇼팽의 왼손 석고 모형 중 포즈나니에 있는 모형

2002 칸느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수상으로 유명해진 영화 '피아니스트'는 실존했던 유대계 폴란드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을 통해 홀로코스트를 조명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극중에서 항상 연주하는 곡은 모두 쇼팽의 피아노작품들이다. 이 영화 주인공이 쇼팽과 같은 폴란드 계열이고 쇼팽은 음악을 통해 민족적 요소와 조국을 향한 애국심을 독특한 서정성과 광적인 열정으로 뿜어낸 작곡가였기에 이 영화와 쇼팽의 작품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이렇듯 쇼팽의 작품이 피아노와 긴밀한 연결성을 갖는 것은 그의 탁월했던 연주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의 음악은 매우 피아노적인 관점에서 착상되었기 때문이다. 작품의 대다수는 200여 편에 이르는 피아노 곡들이며 그 중에서도 낭만파적 소품이 압도적이란 것은 그가 화려하고 솜씨 좋은 즉흥 연주가였다는 반증이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스너(Elsner)는 쇼팽이 오페라와 관현악 작품에 계속 실패하자 "너의 천재성이 피아노에만 집착되어서는 안된다. 오페라가 틀림없이 너에게 불후의 명성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쇼팽은 오히려 "저는 제 안에 있는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작곡가인 동시에 연주가일 수 있는 사람이 행운아입니다"라고 답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창안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었다. 쇼팽의 작품을 연주해보면 그가 얼마나 피아노에 해박했으며 피아니스트적으로 작곡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쇼팽은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6세에 보이치에흐 지브니에게 정식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7세에 이미 두 개의 폴로네이즈를 작곡하여 그의 천재성이 바르샤바 귀족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교육받은 지 불과 2년이 지난 8세에 이미 기로베츠협주곡을 탁월하게 선보인다. 그는 폐결핵 말기 상태에서도 발라드 1번을 정력적으로 연주하였고 사망 1년 전도 안되는 마지막 공개연주에서도 변함없는 화려한 연주로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아쉽게도 그의 전설적인 연주는 겨우 30회 정도에 불과해 그의 연주를 실제로 들은 사람들은 아주 적은데 맨체스터에서의 1,200명 관중을 제외하고 마지막 10년 동안은 주로 프랑스 귀족신분의 애호가 600명 정도만이 그의 연주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연주에서 페달로 음색을 더 다양화하고 다른 차원의 루바토 주법, 템포, 강약법 등을 사용해 피아노연주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유독 제자 운이 없었던 그는 15세에 죽은 천재소년 필치(Karl Filtsch)를 제외하고 제자의 대부분이 귀족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훌륭한 연주적 전통이 잘 계승되지 못했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이 리스트와 그 제자들에 의해 다른 해석으로 연주되는 것에 큰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쇼팽만큼 갈고 다듬어진 연주는 들은 적이 없었다고 전한다.

Jean-Baptiste-Auguste Clésinger 가 쇼팽 사망 직후 본뜬 쇼팽의 왼손 석고 모형을 청동으로 본뜬 모형

1829년 폴란드 Posen(포즈나니)의 귀족 Anton Radziwill 家에서 쇼팽이 연주하는 모습 - Hendryk Siemiradzki의 유화 (1887)

쿠바(Cuba)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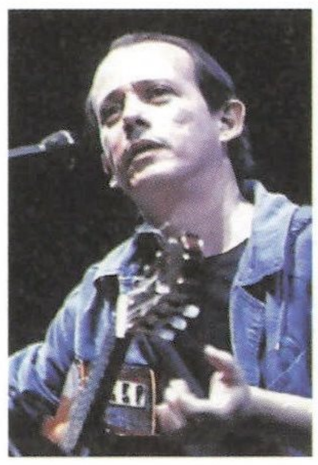
누에바 뜨로바(Nueva Tr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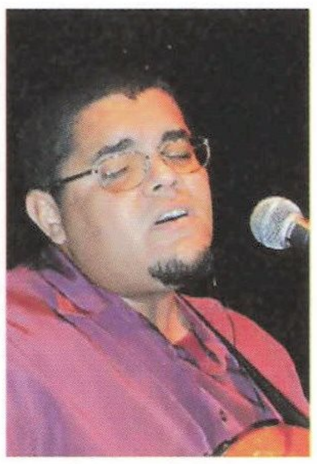
황윤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이룬 쿠바혁명은 쿠바 내의 음악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강대국들의 자본에 휘둘리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던 중남미에서는 음악인들의 자각과 함께 거대한 물결의 노래운동이 퍼져나갔다. 민속음악의 발굴에 평생을 바쳤던 아르헨티나의 아따왈빠 유빵끼(Atahualpa Yupanqui)와 칠레 민속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비올레따 빠라(Violetta Para)가 쌓아 놓은 음악적 바탕 위에 진정한 라틴 아메리카의 노래를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음악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누에바 깐씨온(Nueva Cancion-새로운 노래)'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던 이 노래 운동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독재정권으로 고초를 겪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중남미 전체로 확산되었다. 피노체트의 군대에 목숨을 잃은 빅또르 하라(Victor Jara)나 아르헨티나 음악의 대모로 불린 메르쎄데스 소사(Mercedes Sosa), 우루과이의 다니엘 비글리에띠(Daniel Viglietti) 등이 그 중심인물이다. 이들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애정과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에 담았다. 이 누에바 깐씨온의 정신적 원동력이 바로 쿠바혁명이었으며, 이 노래운동은 쿠바로까지 이어져 '누에바 뜨로바(Nueva Trova-새로운 음유시)'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다.

혁명이후 쿠바 정부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음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누에바 뜨로바 물결 속의 음악들은 의미 있는 노랫말과 서정적이면서도 순수한 음악성을 지닌 노래들이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계적인 음유시인인 실비오 로드리게스(Silvio Rodriguez)와 빠블로 밀라네스(Pablo Milanez)가 지금도 활동하며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음악적으로는 19세기말, 20세기 초반 민중들의 삶을 기타와 함께 노래했던 음유시인들의 음악인 '뜨로바(Trova)'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으며, 뜨로바의 시(詩)적인 전통을 어쿠스틱한 사운드 속에 세련된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 뜨로바의 전통은 까를로스 뿌에블라(Carlos Puebla)가 계승했다. 그는 체 게바라에게 헌정된 가장 유명한 곡인 'Hasta Siempre(체 게바라여 영원하라)'를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실비오 로드리게스


빠블로 밀라네스

누에바 뜨로바는 쿠바혁명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젊은 뮤지션들의 주도로 시작되어 1970년대를 지나는 동안 뛰어난 음악들을 탄생시켰다. 누에바 뜨로바 최고의 명곡인 'Unicornio(유니콘)'을 노래했던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예민한 감성을 지닌 특유의 미성과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시(詩)적인 노랫말로 찬사를 받아왔다. 또 한 명의 음유시인 빠블로 밀라네스는 쿠바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인 호세 마르띠(Jose Marti)와 쿠바 흑인문학의 기수였던 시인 니꼴라스 기옌(Nicolas Guillen)의 시를 노래해 주목받으며, 역시 서정적인 노래들을 발표해 오고 있다.

쿠바음악 전통의 쏜이나 볼레로와는 또 다른 느낌을 지닌 누에바 뜨로바의 노래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은 쿠바음악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아름다운 서정성이 담긴 순수 대중 예술로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금도 많은 뮤지션들이 그 전통을 잇고 있다.

군더더기 없이 배우가 보이기 시작한다

– 부산시립극단 제 37회 정기공연 '헨리4세–왕자와 폴스타프' –

김문홍 _ 연극평론가

연극 공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연출의 의도나 기법만 보이고 배우는 보이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연출이 자신의 표현을 뒤에 숨기고 배우의 모습을 선명하고 강하게 보이게 하는 경우이다. 물론 둘 다 클로즈업 시키는 공연이 가장 바람직한 연극 공연일 것이다. 그동안 서울에서 활동하던 연출가 김광보가 부산시립극단의 새로운 수석연출로 부임하여 첫 선을 보인 것이 제 37회 정기공연인 셰익스피어의 사극 〈헨리 4세–왕자와 폴스타프〉(2010. 3. 11–13,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였다.

이번 공연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고정관념을 불식하는데 일조를 한 것 같다. 고전 작품 공연에서의 현란한 무대 미술과 장치를 지양하고 무대 우측의 왕좌(헨리 4세)를 배치한 단순한 단 하나와 작품의 시간적 흐름과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영상만으로 단순화시킨 점, 그래서 오직 배우의 대사의 에너지와 연기 앙상블만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자 비로소 선명한 대사와 함께 배우의 모습이 보이며 각 역할 인물들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헨리 4세를 연기한 박찬영의 대사가 권력의 무상함이라는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초청배우로 폴스타프를 연기한 이창직의 선명한 대사는 무대 위에서 고함을 내지르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된 호흡의 에너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여타 배우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번 시립극단의 공연은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약간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여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공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무대 후면의 영상이 조금 과해 절제미를 잃었다는 점, 헨리 5세를 연기한 황창기가 폴스타프를 이용한 권력 상승에의 욕구와 서민들과 어우러져 자유정신을 구가하려 한 이중적 특성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창직과 박찬영을 제외한 여타 배우들의 화술이 호흡의 에너지를 잃어 객석까지 잘 전달되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재미는 있었지만 작가의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광보 수석연출가가 부임 후 첫 작품으로 선보인 부산시립극단 '헨리4세–왕자와 폴스타프'

그러나 신임 수석연출가인 김광보는 고향의 시민과 연극인들에게 대사의 서브 텍스트를 섬세하게 읽어낸 연출의 내공을 보여주는 신뢰감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몇 천만원의 제작비를 투입하고도 시민들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빨리 끝낸 점, 그리고 출연 배우들에게 연기의 에너지를 충분하게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한 점은 숙제로 남았다.

연출의 에너지를 뒤에 감추는 대신 배우의 대사가 들리게 하고, 역할 인물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했다는 연출의 섬세한 연출 계산은 이번 공연의 큰 수확이었다. 다음 공연은 어떤 작품이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은 분명 가슴 설레는 일이다.

말러의 5번 교향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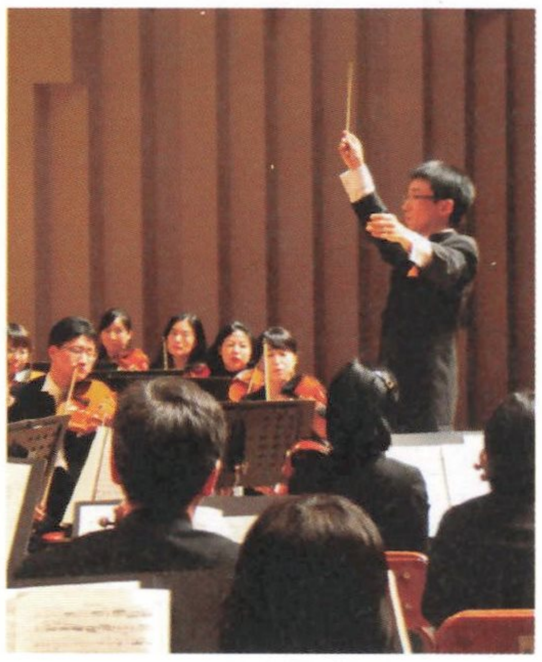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7회 정기연주회 –

하순봉 _ 작곡가

"교향곡은 세계를 담아야 한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 구스타프 말러(1907년)

지난 3월 19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7회 정기연주회에서 모차르트 교향곡 36번 '린츠'와 말러교향곡 제 5번이 연주되었다. 올해는 슈만, 쇼팽 탄생 200주년이자 말러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이라서 최근 여러 교향악단에서 말러는 화두가 되고 있다. 새 지휘자 리 신차오의 부임 후 '돈 후안' 등 의욕적인 레퍼토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 연주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연주였다.

이 날은 모처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이 만석이 되었다. 지휘자는 이 긴 곡을 암보로 지휘하여 어떤 결연함을 보여 주는 듯 했다. 무엇보다 지휘자와 단원들이 혼연일체의 연주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객석으로 그대로 이어졌고 악장사이 예외적으로 긴 튜닝을 할 동안에도 객석의 긴장감은 전혀 풀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치 이 귀한 연주를 실연으로 듣는다는 걸 감사하기라도 하듯 음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금관은 자신감과 힘이 있었고 목관은 낭랑하게 특유의 대화들을 잘 이어 나갔다. 말러 스스로 "나의 음악엔 화성이 없다. 대위법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듯이 모든 악기군들이 미친듯이 자기의 노래와 음색을 외치면서도 그 이합집산이 산만하지 않고 의도와 제어로 균형을 잡고 있었다. 전체적으론 다소 거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차라리 음반에서 느끼지 못하는 현장감과 생동감이라고 느껴졌다. 지휘자의 바디 랭귀지도 명쾌하였고 3악장 호른의 패시지들은 정말 일류의 소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돋보인건 70여분의 연주시간을 내내 긴장감으로 유지한 것이었다. 과연 이 시간동안 이렇게 집중을 해서 연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 다시 한 번 단원들의 노고와 연주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 날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모처럼 부산 음악의 수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잘 나타낸 보기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회 첫번째 무대.

3부 5악장으로 된 이 교향곡은 장송행진곡의 1악장, 격렬한 2악장을 거쳐 종횡무진하는 특이한 3악장과 알마에게 바쳤던 서정적인 4악장, 그리고 환희의 5악장으로 끝난다. 말러는 정말 지휘자, 연주자, 청중을 다 시험하는 작곡가이다. 긴 연주시간, 고도의 기교, 과도한 감정이입, 집중력 모든 것이 필요하다. 끝날 것 같았던 프레이즈는 다시 살아나서 또 무언가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대주의와 엄숙주의는 때론 부담스럽지만 한 인간이 가지는 몸부림과 고통이 절절히 묻어 나온다는 점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말러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신을 찾고 있다면 브루크너는 이미 신을 찾은 작곡가이다"라고 지휘자 브루노 발터는 말하고 있다.

베토벤, 쇼스타코비치 등 유독 5번 교향곡에 걸작이 많다. 작곡가들에게 이 5번의 의미는 무엇일까? 중간점검인가? 작곡가의 구도의 과정으로서 최종적 답은 아닐지라도 가장 열정적이고 투쟁적이며 사랑과 눈물과 회한이 다 묻어 나오는 그런 가장 인간적인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말러의 5번도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작품이 아닐까?

독립 영화갤러리 영화공간 '보기드문'

도심, 행복한 문화 바람이 분다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또따또가'. 예사롭지 않은 이름만큼 부산 도심에 예사롭지 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10년 3월 20일, 부산시 중앙동 40계단에서 열린 원도심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개소식. 오후 2:30부터 시작된 길놀이, 풍물공연, 국악밴드 아비오, 미즈챔버콰이어의 식전 공연이 열리자 사무실에서 나른한 토요일 오후를 보내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따또가가 무슨 뜻이죠?" "또따또가가 뭘 하는 곳이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공연장 찾기가 힘들었던 그들이지만 또따또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둘 생겨난다.

totatoga · 또따또가(街)는 '똘레랑스(Tolerance), 따로 또 같이'의 합성어이다. 40계단을 중심으로 중앙동, 동광동 내에 비어있던 사무실 공간, 빈 상가 18개소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둥지를 튼 문화창작공간이다.

부산문화예술교육협의회(회장 차재근)의 제안으로 시작된 또따또가 프로젝트는 우산의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다. 차재근 회장은 지난 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건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원도심에 새로운 동력이 될 프로젝트의 취지와 운영계획을 알리며 발품을 팔았다. 입주 작가는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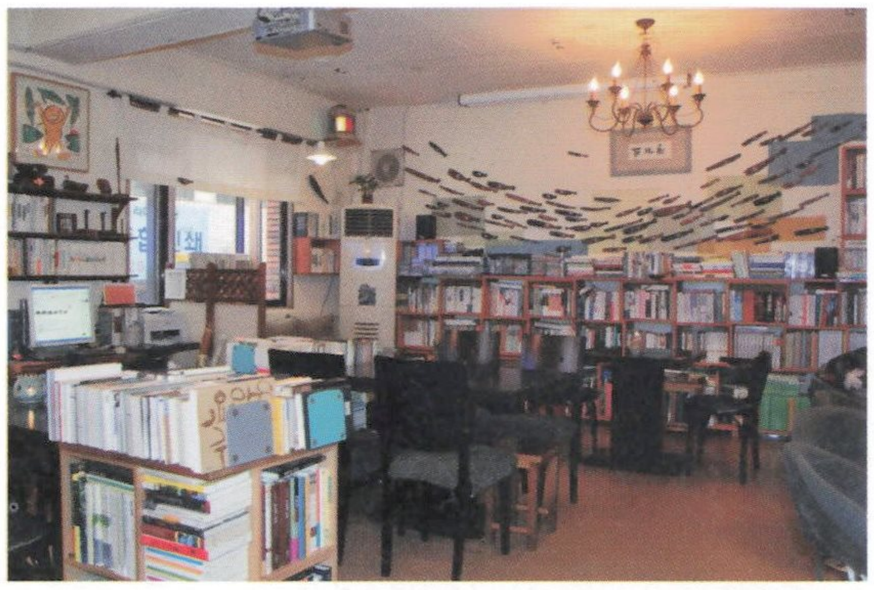
해 12월 공모를 거쳐 1월 15일 입주예술가와 단체가 확정되었다.

현재 또따또가에는 18개소 36실에 미술, 문학, 영화, 전통예술, 청년인디, 퓨전국악, 춤, 서양음악, 연극, 인문학, 문화체험여행 등 다양한 영역들의 창작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이중 미술창작공간은 유쾌한 공작소(작가/구해인), 은여우(작가/김은정), 드림팩토리(작가/김종원), 學問堂(작가/박경효), 스튜디오 방사능(작가/배민기), 지오 테라스(작가/이정애) 등 10곳, 문학창작공간은 달팽이(작가/김수우, 이선형), 守怡齊(작가/최원준, 정훈), 다담재(신정민, 이민아) 등 6곳, 사진, 설치미술창작공간은 GIFT(작가/쁘리야 김), PHOTO TREE(작가/이호형), Char-i 차이(작가/김창언), 작업실 호흡(작가/김경화) 4곳, 영화공간으로는 영화갤러리 보기드문(영화감독/김희진), 디렉트존(시나리오/오승일, 장희철, 연출/추병헌), 수공예갤러리 시화방(작가/정혜정, 이귀혜, 조향진), 수공예 Shop '은여우'(작가/고정화, 김은정 외 5인)가 들어서 있다.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컨서시엄 형태의 입주자들도 눈에 띈다. 자유바다(대표/강혜란), 몽키프로젝트(대표/오리라), 눈동자(대표/박태룡), 징검다리(대표/송진숙)가 연극, 뮤지컬, 아동극, 인형극 등을 공연하기 위한 소극장 '자유바다'를 또따또가에 오픈했다. 전단원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 이수자로 구성된 〈남산놀이마당〉과 〈풍류전통예술원〉, 굿패 〈영산마루〉, 원도심문화단체 〈백산문화예술위원회〉가 컨서시엄으로 입주, 전통예술아티스트센터를 조성했다. 그외 우리나라 비보이의 탄생 무대인 용두산 공원의 상징성을 되살리기 위하여 비보이 그룹 〈디아이〉, 〈BB씨어터〉, 퍼포먼스 그룹 〈점프〉의 청년예술가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청년 · 인디 인큐베이팅 센터, 극단 〈자갈치〉와 〈춤패 연분홍〉, 〈댄스시어터 集〉, 허경미무용단 〈Red Step〉 등이 컨서시엄으로 참여한 무대예술트레이닝센터, 크로스오버국악밴드 〈아비오〉, 합창음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뮤즈 챔버 콰이어〉, 〈한울림합창단〉 등 3개 단체의 창작공간 코랄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지난 해 4월 문을 연 〈백년어〉는 원도심 인문학센터로 지정, 입주예술가와 단체들과 연대한 창작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따또가 총 참여 작가는 개인예술가가 41명, 22개 예술단체에서 321명. 모두 또따또가 가족으로 원도심 문화 활성화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고유창작활동과 시민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말프리마켓과 또따또가 9월 예술축제 등 통합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글/백경옥, 사진/또따또가 제공)

■문의 : 원도심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www.tttg.kr, 051-466-1978)



인문학 중심지 '백년어'

쁘리야 김 작업실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지도

웅장한 취타소리의 매력에 흠뻑

부산시민취타대

왕이나 귀인의 행차, 군대의 행진에서 연주하던 전통 악대인 취타대, 지금은 국가의 주요 공식행사나 문화행사, 각종 축제의 퍼레이드 행사에 등장해 그 화려한 위용을 선보이고 있다.

'취타(吹打)'란 글자 그대로 불고 치는 악기들이 중심이 되는 음악이다. 오늘날 주로 연주되는 '대취타'는 정조대왕 능행도에 나오는 전부고취(행렬 앞에 위치한 악대)의 취고수 편성을 축소한 나발, 나각, 태평소, 용고, 바라, 등채(지휘자) 등 10명 남짓의 취타대가 연주하는 음악이다. 무령지곡(武寧之曲), 구군악이라고도 하는데, 행진에 연주되었던 음악답게 호령하듯 위엄이 있는 장쾌한 느낌의 가락이 특징이다.

현재 부산에는 우리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두 곳의 취타대가 활동하고 있다. 부산 유일의 취타대로 출발했던 백양고등학교(옛 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 취타대와 부산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부산시민취타대가 바로 그것. 백양고등학교 취타대는 그동안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취타대로 활동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7년 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가 인문계 학교로 전환하면서 탄생한 단체가 바로 부산시민취타대이다. 당시 학생들 중심인 백양고등학교 취타대가 인문계 전환으로 운영이 힘들어질 것을 대비해 지금 부산시민취타대 대장을 맡고 있는 백정강 씨와 당시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있던 김경화 씨가 의기투합해 시민취타대를 결성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40여명의 취타대원을 선발한 부산시민취타대는 2007년 3월 24일 부산시민취타대 발대를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여타 다른 지역의 취타대와 달리 부산시민취타대는 우리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운영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모였지만 결성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백정강 대장. 별다른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이니만큼 악기에서 의상구입까지 모두가 시민취타대의 몫이었다.

부산시민취타대는 정기 무대를 격년으로 열어 시민들에게 대취타의 매력을 전할 계획이다.

4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시민취타대는 매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부산시민취타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2월 27일 부산시민취타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3·1절 기념행사,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개막식, 통도사 개산문화대재, 동래읍성 역사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참가해 행사의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지난해 4월에 열린 부산시민취타대 발대식 1주년을 기념하는 첫 정기무대에서는 대취타를 비롯한 대금독주, 경기민요, 작법,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앞으로는 정기무대를 격년제로 열어 행사에서 만날 수 없는 시민들에게도 대취타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정기모임에서는 백정강 대장의 지도로 연습을 갖는다. 태평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악기가 타악기라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 특별히 태평소를 배우고자 하는 대원들을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 따로 강습을 갖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멤버인 부산시민취타대 대장 백정강 씨는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 3호 동래학춤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 전수조교로 우리 국악의 맥을 이어 왔다. 백정강 씨는 부산시민취타대의 결성에서부터 지도까지 시민취타대에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쏟아왔다. 취타와 관련된 악보를 구할 수가 없자 녹화해놓은 국방부 취타대의 연주실황을 일일이 채보해 악보로 만든 일화는 유명하다. 그가 군악대 경험을 십분 살려 다양한 장르의 전통음악을 행진곡풍으로 편곡한 다양한 레퍼토리는 시민취타대만의 자랑이다.

웅장한 취타 연주소리에 반해 시민취타대에 들어왔다는 대원 손상숙 씨. 시민취타대 대원으로 들어오기 전 장구와 북을 배웠다는 그는 현재 시민취타대에서 장구를 담당하고 있다. 갇힌 무대에서의 연주와는 달리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취타대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다고 한다.

한국무용을 전공한 박성옥 씨는 불교무용인 '바라춤'을 배우다가 지인의 소개로 부산시민취타대와 인연을 맺었다. 시민취타대에서 맡은 악기 역시 바라. 무용의 몸짓과는 다른 '樂'의 매력에 빠졌다는 그는 최근 태평소 강습에도 열심이다.

부산시민취타대의 막내 대원 이유미 씨. 타악을 공부한 전공자로, 태평소를 공부하다 지도선생의 추천으로 시민취타대 창단멤버로 들어온 그는 편곡된 취타연주곡에서 전통음악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을 만날 수 있어 반갑다. 시민취타대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에 무지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이유미 씨는 시민취타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는 곽양태 씨. 부산시민취타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부산시민취타대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안팎으로 알려나가는 지역의 문화사절단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글, 사진/정복엽)

■**문의**/부산시민취타대 곽양탁(016-567-6090, cafe.daum.net/pssmctd)

(사)춤다솜무용단 2010 비우니 향기롭다

4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89년 세종대 한국무용과 출신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춤다솜무용단의 부산무대.

'비우니 향기롭다'는 무용이 갖는 신체의 다양한 몸짓 언어, 실질적인 대사,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작품

갈망과 염원이 솟아날 때
색계에서 욕계를 보다
빙하 위를 걸어서 간다
실패하기 위해 히말라야에 온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슬픈 이유
우리가 별처럼 영원할 수 있을까

· 원작, 대본/박범신(작가)
· 총괄 안무 및 연출/양선희
· 연극 연출/박병수
· 특별출연/조광(원로 무용가), 이재은(탤런트), 조대식, 김용철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사)춤다솜무용단 사무국 (02-3408-3519, 011-9634-6401)

2010 부산연극제 경연작품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The Solar System

4월 2일-3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The Solar System' 속의 작가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에 근접해서 탐사하는 그랜드 투어의 미션을 부여받은 보이저호에 영감을 얻어 글을 쓰기로 마음먹는다.

태양을 도는 행성이 인간의 삶과 유사하다는 데서 출발한 이 작품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에 근접해서 탐사하는 그랜드 미션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보이저호의 시각으로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본다.

· 작, 연출/김지용
· 출연/엄준필, 김정, 최은영, 오정국, 송준승, 서정민, 장민, 이현우, 도정우, 금정원 외
· 특별출연/하현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242-8198, 018-519-1683)

제 11회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관악의 대향연

4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97년 금관 5중주로 출발한 이래 금관 10중주, 윈드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트럼펫 수석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희찬의 협연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관악의 대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Possano Galante/Raise of the Son
Benjamin Yeo/Legend of the Ancient
Toshio Mashima/Piano Piano Piano
Warren Barker/Miss Saigon 등

· 지휘/손영진(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
· 협연/안희찬(KBS교향악단 트럼펫 수석주자)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김두천(010-2559-7569)

2010 부산연극제 경연작품 극단 하늘개인날 방외지사 이옥

4월 5일-6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조선 후기 정조의 '문체반정'에 맞서 끝까지 자신의 문체를 고집하며 신념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문인 이옥의 파란만장한 삶을 무대로 옮긴 극단 하늘개인날 '방외지사 이옥'.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이 결합된 이 작품은 개인의 소신적 산물인 글과 언론을 통제하는 요즘의 정치적 권력의 횡포와 맞닿아 있는 지식인의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 작/김문홍 · 연출/김태호
· 출연/박현형, 김우진, 최성우, 호민, 김동준, 손동일, 이혜영, 권은하, 이현옥, 허경진, 권혁진, 구남용, 강석우, 김기훈, 이종범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하늘개인날 (851-4298, 010-6470-5667)

2010 부산연극제 경연작품 극연구집단 시나위 한(韓恨恨)

4월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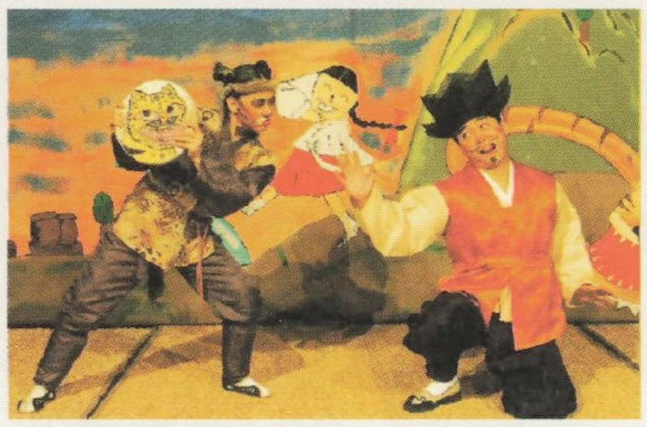
제 2회 전국 창작희곡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강태욱의 '한(韓恨恨)'을 무대화한 이 작품은 B.C 180년 한으로부터 병력과 물자를 원조 받아 세력을 신장시키며, 흉노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고조선을 배경으로 쓰여진 픽션 작품이다.

· 작/강태욱 · 연출/김세진
· 출연/박상규, 백길성, 백상희, 박근태, 한은영, 서성원, 김혜정, 김현진, 신원준, 반필우, 박재환, 김학준, 오영섭, 조재호, 남윤희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2010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호랑이를 만난 놀부

4월 9일-11일 금요일 오전 10:40, 오후 7:30
토-일요일 오전 11:00,오후 3:00 소극장



서울 초연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이덕인의 국악놀이 첫 번째 이야기 '호랑이를 만난 놀부'.

우리 전래동화에 판소리, 민요, 탈춤을 가미하여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장르의 국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된 이덕인의 국악놀이 '호랑이를 만난 놀부'는 실감나는 배우들의 움직임과 극의 재미를 더해주는 소품,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줄 작은 인형극 등을 통하여 어린이 관객들과 옛날이야기 여행을 떠난다.

· 작, 연출/이덕인
· 출연/정진영, 김윤희, 김현진
▪ 관람료 균일 16,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문 의 극단 사계(611-8518)

2010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사계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4월 10일-12일 토-일요일 오후 1:00, 5:00, 월요일 오전 10:40 중극장

힘들고 바쁜 사회의 일상에 떠밀려, 물질만능과 경쟁추구로 마음속 동화를 차츰 잃어 가고 있는 가족간의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 주는 극단 사계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엄마 없이 자라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던 헨젤과 그레텔을 위해 매일 매일 행복의 과자를 굽는 아빠의 행복 과자 효능으로 새엄마를 맞이한다. 아빠가 만든 행복 과자와 헨젤과 그레텔의 화해와 사랑의 마음이 모여서 나쁜 숲속 마녀를 착한 마녀로 동화 시킨다.

· 작/전상배 · 연출/김만중
· 출연/박현민, 박난희, 이영봉, 김정환, 박유진, 김희선, 임선미
▪ 관람료 균일 16,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문 의 극단 사계(611-8518)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4회 정기연주회 음악, 민족 혼을 담다

4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청소년들의 음악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해 주제가 있는 다양한 무대를 열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10년 첫 정기연주회 '음악, 민족 혼을 담다'.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음악에 담았던 19세기 후반 서양 음악의 주 사조인 '국민주의 음악'을 선곡, 청소년들에게 체코와 폴란드, 러시아, 한국 등의 민족 혼을 담은 음악들을 한자리에서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연과 피아니스트 배수정이 협연자로 부산 청소년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스메타나/'팔려간 신부' 중 '3개의 춤곡'
김한기/독주 바이올린과 현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아리랑' 작품 154
최석태/피아노 협주곡 '아리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위촉작품)
비에냐프스키/'전설' 사단조 작품 17
림스키-코르사코프/'술탄 황제 이야기' 모음곡 작품 57

· 지휘/이동신
· 협연/문주연(바이올리니스트), 배수정(피아니스트), 김한기, 최석태(작곡)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메조소프라노 한현미와 함께 하는 프랑스 음악

4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프랑스 파리 불론뉴 국립음악원 성악과 Superieure diplome 1등상 및 최고 전문연주자 과정, 불론뉴국립음악원 합창지휘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메조소프라노 한현미의 귀국 독창회.

한현미는 유학중 2006년 국제 성악콩쿠르 UFAM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상 수상 및 Ravel 특별상, Picardi 2위, Bellan 2위를 차지했다.

2006년 국제 성악콩쿠르 UFAM에서 Ravel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Prix de Ravel을 수상한 'Chansons Madécasses'을 비롯해 포레, 드뷔시, 비제, 마스네 등 프랑스 작곡가의 레퍼토리만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는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음악코치, 독창회 전문 반주자인 이자벨 다케가 반주한다.

프로그램
드뷔시/연가곡 '3개의 빌리티스 노래'
라벨/연가곡 'Cinq mélodies populaires

grecques'(5곡의 그리스 민요)
라벨/연가곡 'Chansons Madécasses' 의 두번째 곡 'Aoua!' 등 수곡
· 반주/이자벨 다케(불론뉴 국립음악원 반주과 교수, 바스티유 음악코치)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한현미(010-4870-4532)

소프라노 정태미 독창회

4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뮤지컬과 교수 소프라노 정태미 독창회.

국제 벨리니 콩쿠르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태미 교수는 그동안 독창회 11회, 오페라 춘희, 춘향전, 사랑의 묘약, 쟌니스키키, 코지 판투테, 모세, 낙소스의 아리아드네 등 오페라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벨리니/우울, 나의 우상이여
라벨/신부의 눈물, 저편의 교회, 어느 멋쟁이, 유향수를 따는 여인들의 노래, 모두 유쾌히!
도니제티/오페라 '샤모니의 린다' 중 '내 마음의 빛'
김순애/그대 있음에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이미 이겼다고?' 등 수곡
· 바리톤/하병욱(동서대학교 교수)
· 피아노/최윤희(경성대학교 교수)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DS뮤지컬 컴퍼니 (320-1910, 323-324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8 오지은 콘서트 - 오지은이 전하는 삶과 사랑, 그리고 음악 … 인생론

4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2006년 '러브송(Love song)'으로 제17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실력파 여성 싱어송라이터 오지은이 부산문화회관 하늘아래 콘서트 여덟 번째 주인공으로 부산을 찾는다.

2007년 1집 음반 '지은'과 2009년 2집 음반 '지은'을 발매한 오지은 성공적인 전작을 답습하기 보다는 더욱 솔직하고 담백해진 가사와 깊고 진해진 사운드로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부산공연에서 오지은은 20대를 지나는, 혹은 지나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를 오지은 특유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 오지은만의 방식으로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58회 정기연주회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I

4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의욕적으로 기획한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첫 무대.

교향 음악의 정수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과 브람스의 작품을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5번 내림마장조 '황제'
브람스/교향곡 제 1번 다단조 작품 68
· 지휘/리신차오
· 협연/김진선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4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악기 전공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된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2009년 새롭게 출범하여 현재 70여명의 정단원과 30여명의 배움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라온제나심포니오케스트라는 사랑 나눔 연주회, 작은 음악회, 정기 연주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문화 소외계층에게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왔다.

▪ 관람료 무료
▪ 문 의 최정인(070-5175-1150)

썬 공연단-라틴아메리칸 댄스공연 Feeling

4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국내 최초 라틴아메리칸 댄스공연단 썬 공연단 부산공연.

2007년 창단 기념 제주공연을 시작으로 2008년 4개 도시 정기공연, 2009년 3개 도시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가진 썬 공연단은 올해 네 번째 정기공연을 창원과 부산에서 가진다.

쏟아지는 환호와 갈채 속에서 박력있는 군무, 커플 댄스, 큰 파도를 만들며 홍수와 같이 밀려들어오는 펑키한 퍼포먼스, 세 커플 댄서들이 펼치는 관능적인 룸바 퍼포먼스 등 환상적인 파트너쉽과 춤에 대한 열정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삼바, 룸바, 차차차, 왈츠, 스윙, 파소도블레, 탱고, 자이브 등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초등학생 50%할인, 중고생 30%할인)
- 문 의 썬 공연단(644-6627)

박강수 콘서트 봄이 온단다

4월 18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소극장

2001년 1집 '부족한 사랑'으로 데뷔한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부산콘서트 '봄이 온단다'.

2집 '나의 노래는 그대에게 가는 길입니다', 3집 '작은 섬', 4집 '봄이 온단다' 등을 발표하고 대학로와 신촌 등지 소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박강수는 영화 '최후의 만찬' '마파도' OST로 친숙하다. 이번 부산공연은 1~4집 자작곡, 통기타 선율에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싱어롱, 70~80년대 올드 팝, 가요 등을 새롭게 편곡, 부산팬들에게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33,000원
- 문 의 엔터테인먼트 pom (010-5470-3487, 02-718-3487)

동문초청 제 21회 경성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4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임병원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현악합주단의 제 21회 정기연주회.

2010년 현악합주 정기연주회는 동문선배들을 초청하여 임병원 교수의 지휘로 재학생들과 함께 연주한다.

프로그램

윌리암스/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그리그/현악합주단을 위한 '두 개의 슬픈 선율'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봄' 제 1번 마장조 작품 8-1 RV.269

파헬벨/현을 위한 샤콘느

쇼스타코비치/현을 위한 신포니아 작품 110

· 지휘/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 관람료 무료
- 문 의 경성대학교 음악학부(663-4918)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슈만의 사랑이야기

4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조윤환 이장희

테너 조윤환과 소프라노 이장희가 들려주는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슈만의 사랑이야기'.

테너 조윤환은 고신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국립음악원 성악과 '오라토리오- Lied u. Oratorium',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 한스 아이슬러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 'Felix Mendelssohn Bartholdy' 마이스터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소프라노 이장희는 연세대학교,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성악과,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고신대학교 김남숙교수가 반주를 맡아 슈만의 걸작 연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48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liebe und Leben) Op.42

- 관람료 균일 10,000원(학생 50%할인)
- 문 의 유니코 (02-532-4876, 010-2070-9743)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앙상블 예술가곡

4월 22일 목요일 오후 19:30 중극장

3월 우리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상처 입은 영혼-이화이야기'를 선보인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대중들의 귀에 익은 아름다운 가곡으로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자연과 사랑을 노래하는 산뜻하고 깔끔한 곡들을 선곡, 편안하고 아름다운 가곡을 합창으로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김강규 지휘로 전반부에서는 '모음곡'으로 편곡된 우리나라 가곡과 이탈리아 가곡을, 후반부에서는 영·미 언어권과 독일어권, 이탈리아어권 가곡을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앙상블 1. 오프닝 앙상블 '봄노래 모음'(안현순 편곡)

앙상블 2. 이탈리아 가곡 메들리(안현순 편곡)

앙상블 3. 앙상블로 듣는 콘코네

앙상블 4. 영미 가곡-샐리 가든(Down by the Sally Gardens, 아일랜드), 칼레도니아의 노래(Caledonian's Air, 스코틀랜드),

로몬드 호수(Loch Lomond, 스코틀랜드)
앙상블 5. 독일 가곡-아침(Morgen!, R.Strauss), 영원한 사랑(Von ewiger Liebe, J.Brahms)
앙상블 6. 이탈리아 가곡-세레나데(La Serenata, F.P.Tosti), 최후의 노래(L'Ultima Canzone, F.P.Tosti), 후니쿨리, 후니쿨라(Funiculi, Funicula, L.Denza)
· 지휘/김강규
· 특별연주/김영립(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바이올리니스트 김일양 귀국 독주회

4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러시아 글린카 국립음악원과 동 대학원, 러시아 글린카 국립음악원 아스뻬란투라(최고연주자과정)를 졸업하고 귀국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일양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 사장조 작품 78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 반주/한은아
▪ 관람료 초대
▪ 문 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부산음악사랑회 제 5회 정기연주회

4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음악사랑을 실천해온 부산음악사랑회의 제 5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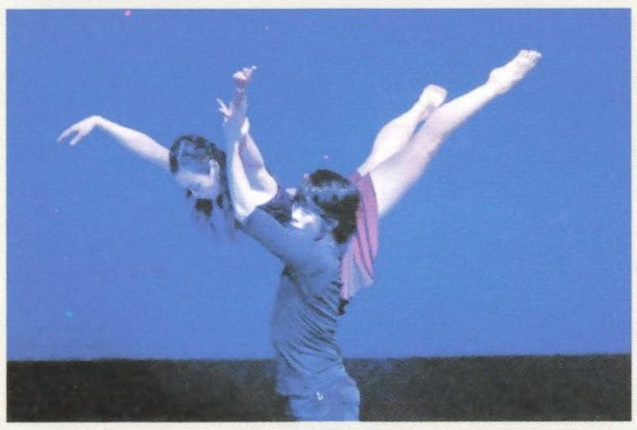
부산음악사랑회는 2005년 창립된 이후 25회의 크고 작은 연주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연주회는 YMCA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우리가곡, 민요, 주옥같은 아리아와 가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이수인/내 맘의 강물
이안삼/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아르디티/입맞춤
민요/박연폭포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윤용하/보리밭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이경자, 배화자, 정복귀, 장은녕, 테너 김지호, 방영식, 원요한, 바리톤 김성홍, 배태균, 한성권
· 연주/YMCA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경자(010-4118-4975)

세상을 춤추다

4월 25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한 후 미국으로 유학, 1999년~2002년 뉴욕 유학 중 발레, 재즈, 현대무용, 필라테스, 아프리칸 댄스 등 다양한 무용수업을 마치고 귀국한 김수희의 첫 번째 개인공연 '세상을 춤추다'.

유학 중 'Rebecca Kelly Ballet', 'Von Ussar Dance Works', 'Diversity df Dance'에서 정 단원으로 활동한 김수희는 귀국 후 뗑브르 발레연구회 정기공연 'IN DREAMS', 제 14회 부산무용제 대상을 수상한 '여자 섬을 꿈꾸다', 김정순발레단 '보은의 꽃', 김정순 발레 50주년 '벤취'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작품
'여자 섬을 꿈꾸다' 재구성
(안무/김수희 · 출연/김수희, 왕영숙, 허종규, 김평수, 김유하, 윤세희, 김숙진, 문은영, 김수연, 박은지, 이단비)
벤취(Bench)
(안무/김수희 · 출연/김수희, 허종규, 김평수, 김유하, 문은영, 김수연, 박은지)
인생이라는 줄을 타는 나는 광대
(안무/김수희 · 출연/김수희, 왕영숙, 허종규, 김평수, 윤세희, 김숙진, 문은영, 김수연, 박은지, 이단비)※초연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김수희
(010-8545-8065, 010-9084-6163)

제 3회 토브여성합창단 연주회

4월 26일 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초교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토브여성합창단이 여성 지휘자인 김민숙의 객원지휘로 갖는 제 3회 연주회.

여성의 섬세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John Leavitt의 'Festival Mass' 전곡과 Spirituals, 찬송가 편곡 등의 다양한 합창음악을 들려준다.

경성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김민숙은 부산동교회 오르가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민숙(010-4506-0857)

김은희 피아노 독주회

4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화여자대학교와 독일 에쎈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최고전문연주자 과정, 마틴루터대학교 피아노교수법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김은희 피아노 독주회.

국내외 독주회와 부산시립교향악단, CBS교향악단과 협연한 바 있는 김은희는 오퍼스 앙상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듀오협회, 한국피아노학회, 부산음협,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소나타

스크리아빈/소나타 3번

리스트/베네치아와 나폴리 등 수곡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김은희(010-9269-5567)

신문범 타악연주회 Part2 산조(散調)

4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제 9회 전국 순천 팔마 고수대회 명고부 우수상을 수상하고 부산 타악의 맥을 이어가는 중견 고수 신문범의 두 번째 타악발표회 '산조(散調)'.

부산시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 공모사업 1위로 선정된 '타로(打路)'로 타악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신문범은 민속악, 고법, 정악, 모듬북 등으로 다양한 음악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첫 번째 독주회 '고법(鼓法)'에서 고수로서 고법의 묘미를 보여준 신문범은 이번 무대에서 기악반주자로서의 장단의 묘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아쟁에 박대성, 피리에 이종대, 대금에 박환영 명인 등 부산을 대표하는 국악명인들과 부산을 대표하는 명창 박성희, 신문범의 스승인 최고의 명고 김청만과 호흡을 맞춘다.

프로그램

지영희제 박범훈류 피리산조 (피리/이종대 · 장고/신문범)

박종기류대금산조 (대금/박환영 · 장고/신문범)

특별공연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소리/박성희 · 고수/김청만)

박대성류 아쟁산조(아쟁/박대성 · 장고/신문범)

남도의 소리 '육자배기'(아쟁/박대성 · 피리/이종대 · 대금/박환영 · 소리/박성희 · 거문고/권은영 · 장고/신문범)

· 출연/박대성(아쟁), 김청만(고수), 이종대(피리), 박환영(대금), 박성희(소리), 권은영(거문고)

· 해설/정영진(문화재청 및 부산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신문범 타악연구소 (583-7958, 010-3282-8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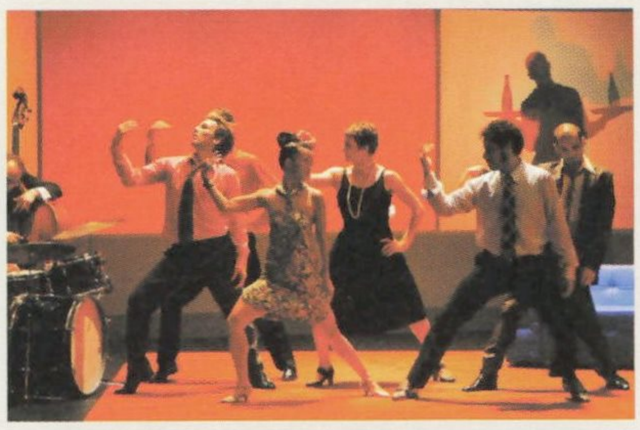
제 7회 2010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Nasser Martin-Gousset Company COMEDY

5월 1일-2일 토요일 오후 6:00,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연극의 경계선(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re)'을 컨셉으로 펼쳐지는 2010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Nasser Martin-Gousset Company의 'COMEDY'.

개막작 프랑스 Nasser Martin-Gousset Company의 'COMEDY'는 일반적인 연극 공연에만 길들여져 있는 관객들에게 모던 댄스와 블랙 코미디의 절묘한 만남으로 연극의 재미를 선사한다. 'COMEDY'는 다이아몬드라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대변하는 오브제와 인간의 원초적인 육체적 욕망이 살인 사건과 연결되어 작품의 심각한 드라마를 구성한다.

라이브로 연주되는 재즈 선율 속에 살아 숨 쉬는 배우들이 관객들의 큰 웃음을 자아낸다.



· 안무/Nasser Martin-Gousset

-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
- 문 의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제 7회 2010 부산국제연극제 참가작 한국 트러스트 무용단 세번째 전환

5월 7일-8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소극장

거친 에너지와 꾸밈없는 날것의 몸짓을 통해 호소력 짙은 무대를 선사해 온 트러스트 무용단의 세번째 전환.

이 작품은 트러스트의 두번의 전환을 뚫고 진행되는 자기고백과도 같은 작품으로 두 점을 이어 세번째 전환점으로 완성되는 삼각의 결코 뒤틀림 없는 영혼성을 말한다.

· 안무/김형희

· 예술감독, 연출/김윤규

· 출연/이선영, 최진한, 구선진, 이재은, 서진욱 외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 의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MUSIC

2009년 '게자 안다' 국제콩쿠르 우승 이진상 피아노 독주회

4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피아니스트 '게자 안다'를 기려 3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콩쿠르인 '게자 안다'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해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 이진상 독주회.

프로그램
슈만/환타지 작품 17
리스트/소나타 h-moll

- 관람료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문 의 부산대학교 음악연구소 (010-5538-0555)

크루즈공연 'Beautiful Korea -Korean Music & Dance'

4월 2일(금), 23일(금) 오전 11: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을 찾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신명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무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3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가야금병창 '내고향의 봄' '꽃이 피었네', 대금과 구음시나위, 통영교방진춤 등

▸ **10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동래한량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실내악 '춘무', 봄노래 민요연곡 등

▸ **17일 프로그램**
춘앵전, 가야금 병창 '꽃타령', 생소병주 '수룡음', 진주교방굿거리춤, 신민요 '노들강변' 등

▸ **24일 프로그램**
수요남극, 태평무, 시조 '동창이…', 실내악 '춘광여정', 살풀이, 판굿 등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2010 셀라노래선교단 콘서트 봄을 여는 음악회

4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84년 부산지역 음악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문화예술 선교단체인 셀라첼버콰이어 & 오케스트라와 임마누엘무용선교단이 출연, 성가곡과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 지휘/배득신(오케스트라), 박천수(콰이어)

- 문 의 셀라노래선교단 (553-7075, 010-9919-1007)

신성애 동초제 심청가 완창발표회

4월 4일 일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인천국악대전 판소리부문 대상,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2호 심청가 이수자로 있는 신성애는 이번 무대에서 이일주 명창으로부터 사사받은 동초제 심청가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 고수/권혁대, 송재영

- 문 의 신성애(011-9211-9779)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6일 제 1회 김경수 피리독주회 樂을 통하여 我를 보다**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마산국악관현악단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수의 첫 번째 피리독주회.

김경수는 제 17회 전국국악대제전 일반부 기악부문 준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관악영산회상(피리/김경수, 대금/유경조, 아쟁/성기만, 장구/송강수)
서용석제 한세현류 피리산조(피리/김경수, 장구/송강수)

▸ **13일 김정원과 윤정미의 춤판 '淸청 · 洪홍'**
춤소리예술단 대표, 춤패 배김새 지도위원으로 있는 김정원과 윤정미 筍무용단, 우리춤사랑연구회 대표로 있는 윤정미가 펼치는 전통춤판.

▸ **20일 최윤영 독창회 '來語 - rare'**
국립부산국악원 연수단원으로 있는 최윤영 독창회.

프로그램
추강이, 도화! 널 그리며, 해주아리랑, 끔다라 꿍, 자진아리, 나빌레라, 큰애기 반봇짐, 배치기 등

▸ **27일 정은경 해금연주회**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있는 정은경 해금연주회.

프로그램
만파정식지곡, 천년만세, 한범수류 해금산조, 창작곡 '쥐구멍에 볕들었어도'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테너 김현식 독창회

4월 6일 화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테너 김현식의 6번째 독창회.

슈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그의 대표적인 작품 'Liederkreis 작품 24' '시인의 사랑 작품 48' 전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영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김현식(011-566-4172)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6일 쇼팽,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 제 15회 한연회 연주회**

1998년 부산대학교 한명희 교수의 제자들로 창단된 한연회의 15번째 정기연주회.

쇼팽, 슈만 탄생 200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최윤정, 박정온, 정은정, 김소희가 쇼팽과 슈만의 작품을 들려준다.

▸ **13일 김석근 첼로 독주회 '첼로의 아름다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YMCA Neo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첼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석근 독주회.

▸ **20일 제자들이 꾸미는 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

소프라노 전선화, 박은미, 김현애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무대.

▸ **27일 음악세상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 '7080 통기타, 성인가요, 발라드'**

1998년 결성 후 공연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도와온 음악세상의 사랑 나눔 콘서트.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27일 공연은 균일 20,000원)

▪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피아니스트 정광민, 윤지은 제자 연주회

4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글로빌아트홀

피아니스트 정광민, 윤지은의 제자로,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조지현, 고선희, 송준섭, 이찬미의 무대.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동래문화회관 토요해피콘서트

4월 10일(토), 24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격주 토요일 오전에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쉽고도 즐거운 클래식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홍성택)가 클래식명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10일 다이나믹 브라스 콘서트**

금관악기, 타악기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

▸ **24일 현악기와 음악여행**

아름다운 현악4중주의 세계로 떠나는 음악여행.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동래문화회관(550-4481)

예오름예술단 창단 1주년 기념 공연

4월 11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 3호 동래학춤 예능보유자인 유금선을 주축으로 구성된 예오름예술단(단장/김신영) 창단 1주년 기념공연.

프로그램

모듬북, 대금산조, 진도북춤, 부채춤, 학춤, 판굿 등

▪ 문 의 김신영(010-3041-0252)

빈국립음대 교수 볼프강 다비드와 부산신포니에타가 함께하는 사계

4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개점55주년기념행사
기념행사는 2010년 1월 1일 ~ 3월 까지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
세계지도를
구매고객님께 선착순 증정!
2010년 캘린더는 12월 1일 ~ 3월까지!
※행사끝난 후 지도 판매가격 ₩7,000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센터!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Since 1955
문우당서점
각층일부안내
3층 해사도서 기술전문서적 국정교과서
4층 경제경영일반,
5층 서고, 컴퓨터 관리실
지하1층 문학, 청소년, 만화, 여성도서
각층일부안내
2층 각종지도 각종외국어서적 각종사전
3·2층 국산지구본 수입지구본 소·중·대형
1층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몰 건너편]
각 종 공 연 예 매 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빈국립음대 교수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볼프강 다비드와 1986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 그동안 100여회가 넘는 연주회를 통해 탄탄한 연주 실력을 선보여온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 부산신포니에타가 들려주는 비발디의 '사계'.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 의 우리아트(010-5555-3825)

독일가곡연구회 제 36회 정기연주회

4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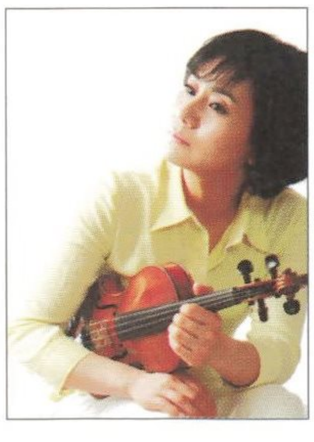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에서 유학한 부산지역 음악인들로 결성된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는 슈만의 대표적인 연가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부산YMCA오페라합창단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김현식(011-566-4172)

제 3회 김미선 바이올린 독주회

4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싱겐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신포니에타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미선 독주회.

프로그램

프랑크/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가장조
베토벤/소나타 제 5번 바장조 작품 24 '봄' 등
· 피아노/박정현

- 문 의 우리아트(010-5555-3825)

김윤영 첼로 독주회

4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경성대학교와 러시아 국립 마그니토고르스크 글린카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고신대학교 간호대, 의과대학관현악단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윤영 독주회.

프로그램

브람스/첼로소나타 제 1번 작품 38 마단조
마야스코프스키/첼로소나타 제 1번 작품 12
스메타나/피아노트리오 작품 15 사단조
· 피아노/김성희 · 바이올린/김성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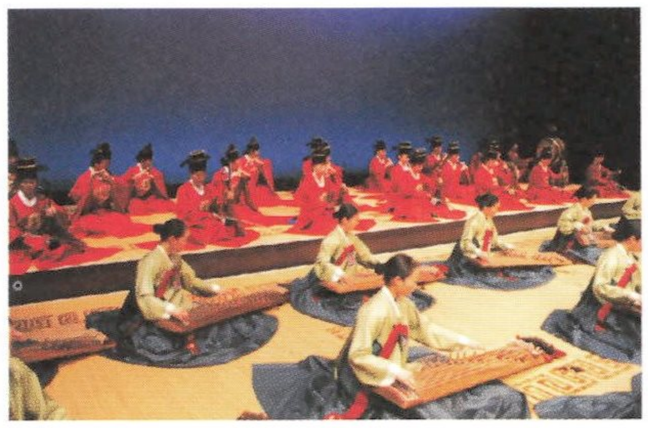
4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2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문화공연, 환우를 위한 작은 음악회, 지하철 문화마당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해온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의 9번째 정기연주회.

- 문 의 김형욱(011-9044-7576)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제 2회 정기연주회 부산아리랑

4월 15일-16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이 마련하는 두 번째 정기연주회. 아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협연곡 '아랑의 꿈', 민요 '한반도 아리랑 순회', 현악합주 '아리랑' 등
· 음악감독/이정필

- 관람료 A석 8,000원 · B석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청소년을 위한 로스 꼬레아노스 기타여행

4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클래식기타리스트 이진아를 주축으로 구성된 로스 꼬레아노스가 마련한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기타 연주회.

프로그램

헨델/시바여왕의 도착
타레가/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피아졸라/리베라탱고 등 수곡
· 연주/이진아, 박인성, 박은혜, 박선일, 구충모, 강승실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문 의 세종예술기획(02-2273-4455)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혼 트리오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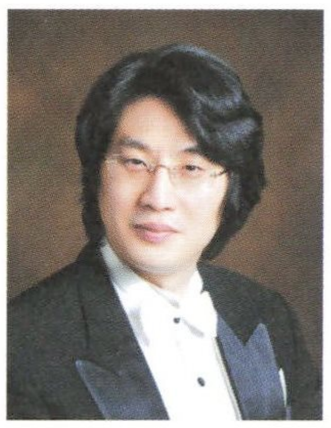
4월 16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서울대학교 동료교수인 호르니스트 김영률,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가 함께하는 트리오 연주회.

- 관람료 사전예약(주최측 문의)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협연의 밤

4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손명균

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손명균)와 차세대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협연무대.

· 특별출연/김혜경(피아노)
· 협연/박소진(부산예고 2년), 신효정(동아대학교 2년), 박진영(동의대학교 4년), 장한나(경성대 대학원 졸업, 이상 피아노), 오선경(인지초등 6년, 바이올린), 정인흥(부산예고 1년, 소프리노)

- 문 의 손명균(011-830-1636)

2010 부산클라리넷콰이어 협주곡의 밤

4월 19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9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의 제자들로 결성된 부산클라리넷콰이어가 마련하는 협주곡의 밤.

· 지휘/손호상

- 문 의 부산클라리넷콰이어 (010-8280-4646 , 010-8007-8087)

부산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아이티 구호 성금 자선 음악회

4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아이티 지진 대참사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티 국민들을 돕기위해 부산의 음악인들과 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사랑의 자선음악회.

· 지휘/손명균(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 출연/이경옥(신라대학교 교수), 이조토브 에브게니(신라대학교 교수), 정년경(신라대학교 겸임교수), 금찬이(신라대학교 겸임교수, 이상 피아노), 이기녕(동의대학교 교수, 작곡), 김경현(영산대학교 교수, 테너), 오신정(인제대학교 교수, 플루트), 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첼로)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손명균(011-830-1636)

위드스트링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4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위드스트링앙상블은 2008년 창단 후 아동시설과 모자시설, 병원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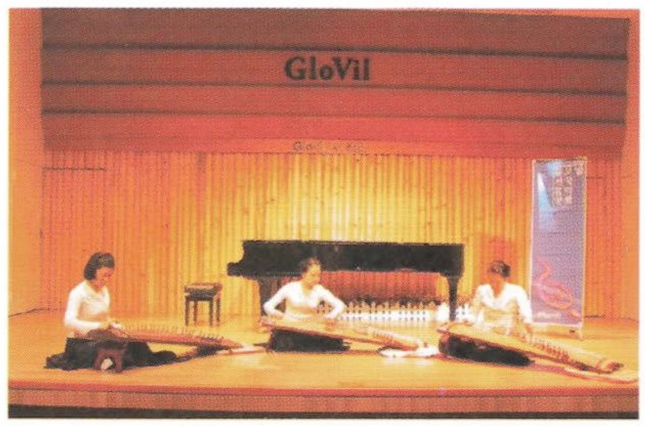
엘가/세레나데 작품 20
바흐/브란덴부르크협주곡 제 3번 사장조
멘델스존/신포니아 제 10번 등

· 악장/김성은 · 협연/피아니스트 정순화

- 문 의 정금희(010-7565-0280)

제 9회 글로빌전국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 연주회

4월 24일 토요일 오후 2:00 글로빌아트홀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빌아트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9회 글로빌전국음악콩쿠르 각 부문 우수입상자들의 무대.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제 28회 글로빌아트홀 행복음악회

4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지역 주민과 부산 시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글로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행복음악회.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2010 부산성악아카데미 정기연주회 한국가곡과 오페라 중창의 밤

4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독일,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등에서 수학한 부산의 성악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성악아카데미의 2010년 정기연주회.

1부 우리가곡에 이어 2부에서는 유명 오페라 중창곡으로 마련된다.

· 출연/이민정, 김화정, 전영무, 김길수, 박현정, 우명화, 이홍득, 허미경, 박기범, 이한성, 이은민, 박은미, 양승엽, 안상철
· 피아노/박은미, 김인재, 이소영

- 관람료 일반 2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안상철(010-2400-5271)

강태홍류 가야금 구음산조

4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가 마련하는 강태홍류 가야금 구음산조 무대.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8호로 지정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예능보유자 신명숙의 구음과 전수조교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김혜진의 가야금 연주로 들려준다.

김혜진

· 출연/신명숙(구음), 김혜진(가야금), 구환석(장구)

- 문 의 김지영(010-9234-9638)

김유진 피아노 독주회

4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계명대학교 피아노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김유진은 2004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경남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소나타 가단조 작품 42 D.845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작품 38 다장조 등

- 문 의 김유진(019-322-2167)

제 5회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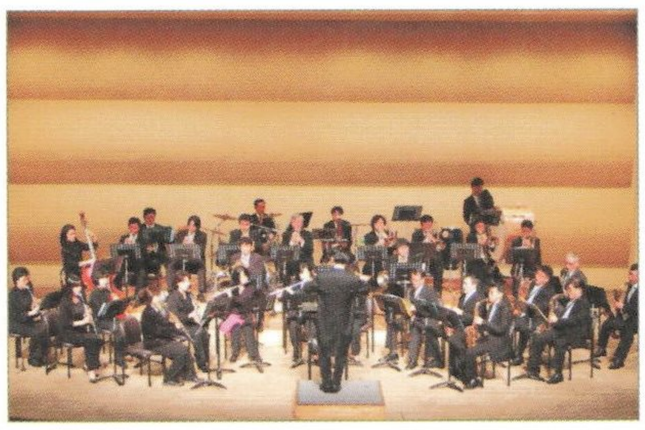
4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박찬엽과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노모스 플루트앙상블의 5번째 정기연주회.

- 문 의 박필희(016-578-0996)

대동윈드오케스트라 제 8회 정기연주회

4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대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로 구성된 대동윈드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 문 의 김동우(010-4551-5698)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끌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 1일 재즈와 크로스오버 뮤직의 만남

클라리네티스트 황윤원, 송성인, 한상헌, 황수빈, 콘트라베이스 주자 황성준으로 결성된 4크라베이스가 재즈와 크로스오버 뮤직을 들려준다.

· 해설/김근영 · 특별출연/채희진

▸ 8일 다이나믹 브라스 콘서트

다이나믹 금관5중주가 출연, 고전에서 현대까지 시대별, 작곡자별로 다양한 작품을 들려준다.

▸ 15일 소프라노 & 메조소프라노-이중창의 밤

소프라노 김지영과 메조소프라노 차윤희가 들려주는 이중창의 밤.

▸ 22일 악기와의 대화

'내 악기를 소개해요'라는 시리즈로 마련되는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의 해설음악회.

▸ 29일 악기랑 나랑 재즈를 즐겨요

타악기로 만나는 재즈와의 즐거운 만남.

· 해설/채희진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PLAY

연극 '그 남자 그 여자-순수편'

1월 22일(금)-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설레이는 첫사랑의 기억을 그린 연극 '그 남자 그 여자-순수편'.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2009 점프 부산

2009년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 · 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넌버벌 퍼포먼스.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9년 12월 1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B씨어터

비보이와 사랑에 빠진 발레리나가 비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B씨어터(804-2252)

보잉보잉 1탄

3월 5일(금)-4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솜사탕아트홀 1관

바람둥이 남자주인공이 세명의 각기 다른 스튜디어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그린 폭소 코믹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솜사탕아트홀(1566-7050)

라이어 2탄 - 라이어 그후 20년

3월 12일(금)-5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두명의 부인과 자녀를 둔 택시운전사 주인공의 좌충우돌 이중생활이 스피드한 전개와 거듭되는 반전 속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폭소코미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연극 오구

3월 19일(금)-4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노모의 장례식을 둘러싼 한바탕 소동과 그로 인한 감동과 화해를 그린 연극 '오구'.

· 작, 연출/이윤택
· 출연/김미숙, 윤종식, 김철영, 변진호, 홍선주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2010 연극 잇츠유

3월 26일(금)-4월 27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레드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사랑과 꿈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잇츠유'.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SM기획(1600-1602)

연극 오월엔 결혼할꺼야

3월 26일(금)-5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미래를 고민하고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져가는 스물아홉 미혼여성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연극.

· 작/김효진 · 연출/홍주연
· 출연/이지선, 윤혁진, 성아름, 서현아, 박보경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연극 광수생각

3월 27일(토)-4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소강당

무명 만화가 광수와 그 가족을 주인공으로, 우리네 일상을 따뜻한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미니티켓(1600-1716)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레파토리시스템 늙은 날의 초상

4월 1일-2일 목-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자식들로부터 소외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4명의 노인을 통해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소외를 그린 '늙은 날의 초상'.

· 작/강진순 · 연출/이기원

· 출연/변지연, 우명희, 유상흘, 진선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레파토리시스템(861-6345)

연극 미누, 시즈위 밴지를 만나다

4월 1일(목)-5월 15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197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들의 삶을 그려냈던 남아공 작가 아돌 후가드의 원작을 새롭게 각색, 오늘날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본 연극.

· 원작/아돌 후가드 · 연출/이성민

· 출연/이현식, 김재형, 이도현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 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가족뮤지컬 더스토리오브노틀담드파리-부산

4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4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시민회관 대극장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를 다양한 연령층이 감상할 수 있는 가족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 문 의 다원뮤지컬(02-3427-1358)

플라잉뮤지컬 배고픈 애벌레의 꿈

4월 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4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못난 애벌레가 결국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내용을 통해 생명의 신비로운 탄생과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어린이 뮤지컬.

· 대본/홍보선 · 연출/민성필

· 출연/권제인, 정연욱, 김희형, 서숙희, 한보람 외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가람뮤지컬(1544-4852)

스노우드롭

4월 3일(토)-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은행강도와 인질이 벌이는 요절복통 인생 이야기가 춤과 노래로 펼쳐지는 폭소 코미디극 '스노우드롭'.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SM기획(1600-1602)

개그콘서트 쇼타임

4월 3일(토)-25일(일) 토-일요일 오후 4:00, 7:00(평일 공연없음) 동아대학교 석당홀

TV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출연중인 개그맨 김재욱, 이동윤, 노우진, 이상호, 이상민, 송준근 등이 선보이는 새로운 형식의 개그 퍼포먼스.

기존의 개그형식에서 벗어나 무언극, 마술, 퍼포먼스, 뮤지컬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에이스 엔터테인먼트(991-8860)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도깨비 1.22

4월 4일 일요일 오후 6:00, 5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인구감소로 폐쇄 위기에 처하자 주민 수 불리기에 나선 한 마을을 배경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그린 연극 '1.22'.

· 작, 연출/김익현

· 출연/김익현, 전민수, 백정임, 차일환, 정다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도깨비(722-4231)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4월 10일(토)-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하버드법대 남자친구로부터 '지나치게 금발'이라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은 사랑스런 주인공 '엘 우즈'가 하버드 법대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뮤지컬배우로 거듭난 배우 김지우와 이하늬, 소녀시대 제시카가 주인공 '엘 우즈' 역을 맡아 그들만의 개성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연출/장유정

▪ 관람료 R석 90,000원 · S석 70,000원
A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가족뮤지컬 우렁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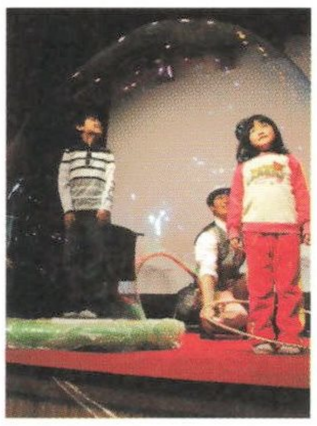
4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4월 2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시민회관 소극장

전래동화 '우렁각시'를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의 가족뮤지컬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

· 작, 연출/오계영
· 출연/서경화, 장승현, 윤준기, 황자미, 김지희
▪ 관람료 균일 15,000원(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버블버블쇼 시즌2 & 체험쇼

4월 17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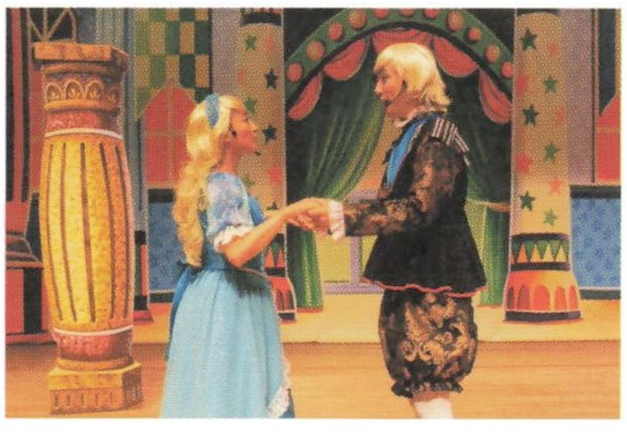


갖가지 다양한 비누방울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하는 버블버블쇼 시즌2.

▪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 문 의 클래식 아트원 (1688-7923)

가족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공주

4월 17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8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명의 명작동화를 각색,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안겨주는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이제희
· 출연/강규영, 강지성, 정경일, 안미현, 이보은 외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 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연극 사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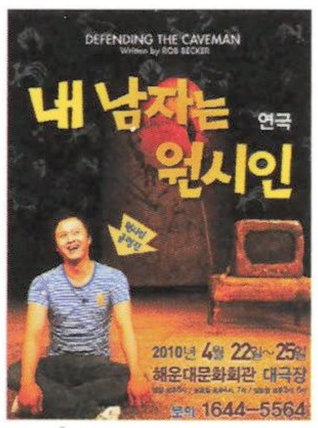
4월 19일-21일 월-수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

헬렌 켈러와 그의 스승 앤 설리반의 실화를 바탕으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주인공 도리의 자아찾기를 그린 연극 '사흘'.

· 원작/헬렌 켈러 · 대본/이홍림
· 연출/박태룡
· 출연/어주선, 최정아, 김아람, 옥수연, 김소진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 의 나다문화사업단(242-9402)

내 남자는 원시인

4월 22일(목)-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남녀의 차이와 그로 인해 생기는 남녀간의 오해들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그려낸 1인극 '내 남자는 원시인' 부산공연.

특유의 유쾌함과 친근감으로 TV와 영화, 뮤지컬을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 배우 공형진이 주인공을 맡아 웃음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관람료 1층 45,000원 · 2층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팬양의 버블판타지

5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2일 일요일 오후 1:30, 4:00 KBS부산홀

버블퍼포먼스로 16개의 기네스기록을 세운 세계 최고의 버블아티스트 팬양의 버블쇼.

팬양의 아들인 버블아티스트 데니양과 함께 형

형색색 비누방울의 향연을 펼친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SM기획(1600-1602)

DANCE

부산새싹발레단 콩쥐팥쥐

4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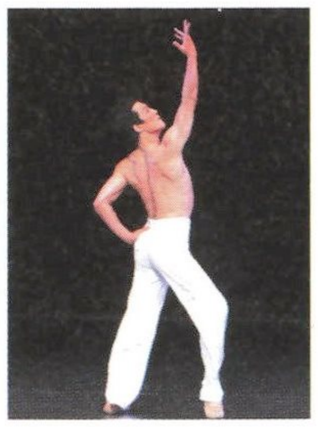
1988년 창단 후 수많은 발레 인재들을 키워낸 신라대학교 김정순교수가 이끄는 부산새싹발레단 창작발레 '콩쥐팥쥐'.

1989년 창단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콩쥐팥쥐'는 우리의 전래동화를 각색해 '권선징악'의 교훈을 보여주는 창작발레이다.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3인 가족 20,000원
▪ 문 의 이상영(011-859-5162)

해운대문화회관 기획공연 이원국 발레단 사랑의 세레나데

4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한국 발레리노의 교과서'라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레리노 이원국발레단의 무대.

지난 20년동안 유니버설발레단,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무용수로 인정받은 이원국은 이번 무대에서 호두까기인형, 카르멘, 해적, 스파르타쿠스, 탱고, 돈키호테 등 유명 발레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 관람료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정신혜무용단 2010 특별기획공연 우리 춤 재발견 시리즈 춤. 사계

4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삶의 형식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한국 춤사위에 투영하는 정신혜무용단의 우리 춤 재발견 시리즈 '춤. 사계'.

· 예술감독/정신혜 · 연출/조주현
· 출연/정혁준, 정신혜, 이남희, 구성심, 하현정, 박혜경, 최지은, 성지혜, 강아름, 김주현 외

- 문 의 정신혜무용단(999-5301, 999-6286)

MOVIE

월드시네마 Ⅶ

3월 19일(금)-4월 25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월요일 휴관)

세계영화사에 빛나는 걸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테크 부산 '월드시네마' 7번째 상영전.

루이스 브뉘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잉마르 베리만 등 거장들과 덴마크의 거장 칼 드레이어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이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ONCERT

전제덕밴드 재즈 콘서트

4월 1일 목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대극장

한국 최고의 재즈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과 재즈 디바 말로가 함께 하는 재즈콘서트.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에스엠기획(1600-1602)

추억의 7080 콘서트

4월 2일 금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가수 남궁옥분, 유심초와 떠나는 추억의 7080 콘서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1~5)

김광석 추모콘서트-부산

4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KBS부산홀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 문 의 ㈜예술기획 성우(1599-1980)

유익종 단독콘서트 유익종의 봄나들이

4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R석 30,000원 · A석 20,000원
- 문 의 우리아트(010-5555-3825)

힘내라 청춘! 2010 파워 콘서트

4월 15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 출연/SG워너비, F.sharp, HAM, 씨야, 나무자전거, 홍진영, The Crush Crew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문 의 부산CBS(636-0050)

2010 바비킴 전국 투어 콘서트 'My Soul' in 부산

4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8:00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VIP석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 문 의 (주)knp엔터테인먼트(1544-5413)

The Great Moment Season1. 뮤지션S-휘성, 리쌍, 정인, 이영현

4월 18일 일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 관람료 VIP석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 문 의 쇼컴퍼니(1644-0515)

한낮의 유U; 콘서트 조관우 특집공연

4월 20일 화요일 오전 11:00
서면롯데호텔 아트홀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콘서트인 한낮의 유U; 콘서트 4주년 기념 특집무대로 열리는 조관우 콘서트.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탁월한 미성의 소유자 가수 조관우가 출연해 늪, 꽃밭에서, 님은 먼 곳에 등 그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이소라 콘서트-세번째 봄 in 부산

4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SR석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문 의 (주)밝은누리(1566-9621)

EVENT

2010 조선통신사축제

4월 30일(금)-5월 2일(일) 부산시내 곳곳

400여년 전 조선통신사의 평화교류 정신을 21세기에 되살리고자 마련한 부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 2010 조선통신사축제.

▪ 문 의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816-3371, www.tongsinsa.com)

GALLEEY

2010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소장품展 세라믹 건축을 꿈꾸다

3월 13일(토)-4월 25일(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윌리엄 데일리, 토니 햅번, 타다아수 사사야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도자작가들의 작품 18점을 선보인다.

▪ 문 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055-340-7000)

조현화랑 기획전 Red

3월 19일(목)-4월 18일(월) 조현화랑

유봉상 作 '무제 2006'

'빨강'이라는 테마로 작업한 다양한 경향의 회화와 사진을 한자리에 모은 기획전.

▪ 문 의 조현화랑(747-8853)

문형태 제 9회 개인전 Pain+er

3월 19일(금)-4월 16일(금) 갤러리 맥

▪ 문 의 갤러리 맥(722-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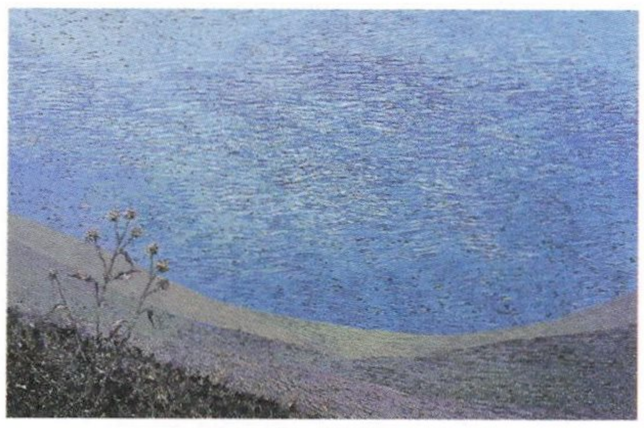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 사진전

3월 26일(금)-4월 10일(토)
시민회관 소극장 로비

▪ 문 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MIX 그룹전 '바람'

4월 1일(목)-4월 30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박미영 作 '바람이 머무는 곳'

· 참여작가/김정대, 박미영, 박항원, 유남규, 이원주, 이주희, 하미화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김윤택 개인전

4월 2일(금)-4월 8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김기찬 사진전 골목 안 풍경

4월 3일(토)-6월 13일(일) 고은사진미술관

30년 동안 골목의 풍경과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故 김기찬 사진전.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한국현대작가 30인전

4월 5일(월)-4월 19일(월) 타워갤러리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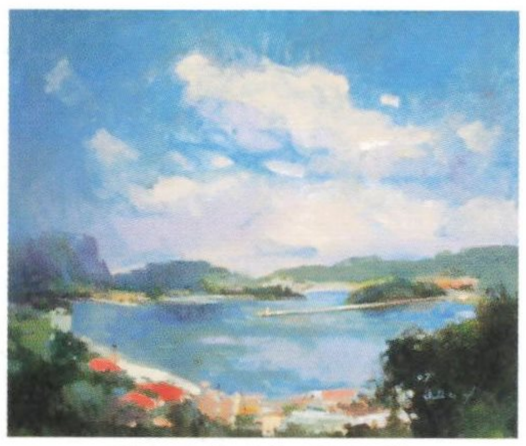
김정주 초대전

4월 9일(금)-4월 22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윤둘리 서양화전

4월 21일(수)-4월 30일(금) 타워갤러리



윤둘리 作 '내고향 통영'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제10회 火沙會전

4월 23일(금)-4월 29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4월 전면 리모델링

로비 확장, 로비내 티켓팅부스 설치
프로세늄(무대규격) 8.5m에서 9.5m로
정기회원 전용 공간 설치

1988년 개관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이 4월부터 전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대극장 리모델링은 개관 22년이 지난 노후된 무대공연시설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연장내 로비 및 객석, 화장실 등을 개 · 보수 한다

대극장은 그동안 프로세늄(무대규격)이 낮고 무대기계 노후로 인한 중량, 속도저하로 다양한 세트 연출이 힘들어 대형공연 유치가 어려웠다. 현재 8.5m의 프로세늄은 9.5m로 높이고 무대기계 중량은 300㎏에서 1,000㎏, 이동속도는 분당 18m에서 90m로 개선해 오페라 등 대형 공연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개관 당시 설치했던 노후 음향설비를 첨단장비로 바꾸고 음향반사판도 합판에서 종이를 압축해 만든 최신 시설로 교체한다.

공연장환경과 분위기도 대폭 바꾼다. 좁고 어두웠던 로비공간 전면에 폭 18m, 높이 11m의 통유리를 설치해 밝고 친근한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고, 객석 의자 간격이 좁아 이동이 불편했던 것을 감안, 객석과 객석 간격은 90cm에서 100cm로 늘리고 바닥 높이를 조정해 가시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로비를 확장, 로비에 티켓팅 부스를 설치해 관객들이 매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여성관람객수 대비 여성 화장실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1층 좌측 화장실을 여성전용화장실로 단장하고, 2층에는 정기회원 전용공간, 3층에는 휴게시설,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한다.

이밖에 공연장 내 조명시스템과 공기정화시스템을 개선해 실내의 쾌적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6개월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은 중극장과 구 · 군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로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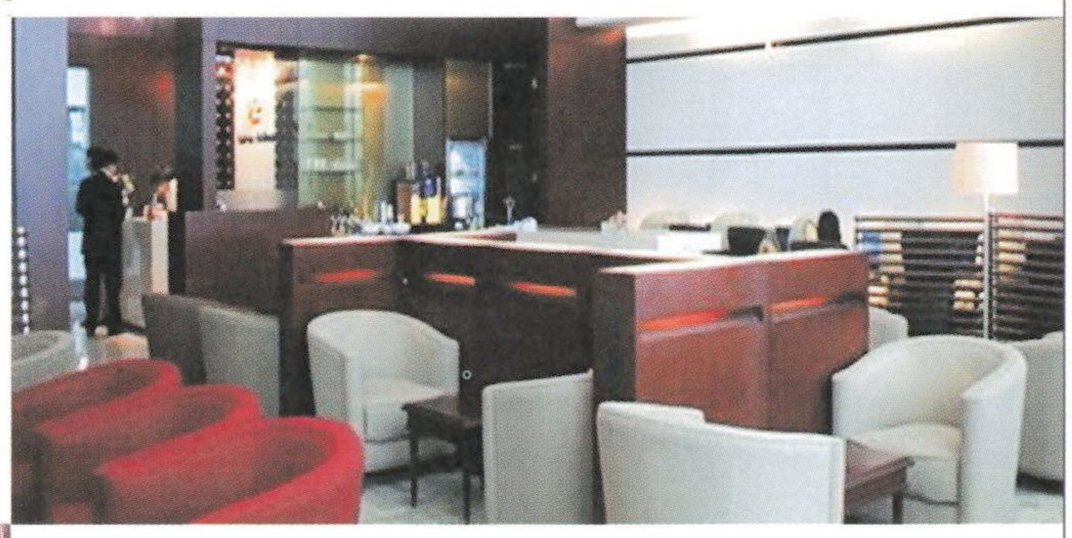
전면 유리설치로 어둡고 딱딱한 분위기의 로비가 밝고 친근한 분위기로 바뀐다.

내부벽면

다소 밋밋한 벽면에 인테리어를 가미하여 한결 세련된 분위기로 바뀐다.

티켓팅부스

외부 티켓팅 발매로 관람객의 이용이 다소 불편했으나 내부 티켓팅 부스 설치로 불편을 해소한다.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정기회원 전용공간 확보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회원의 자긍심을 키워준다.

휴게공간(3층)

시설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3층 공간을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 교향악축제 피날레 장식

4월 20일 화요일 오후 8: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니스트 김정원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축제 피날레무대를 장식한다.

서울과 지방간의 음악의 벽을 허물기 위해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출발한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는 국내 최대의 음악축제로 각광받아왔다.

2010 교향악축제는 전국 18개 교향악단과 우리나라 음악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 연주자, 젊고 실력 있는 차세대 연주자, 지난해 금호영재대상을 수상한 신예 연주자까지 다양한 세대가 협연자로 참여, 더욱 화려한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올해는 쇼팽과 슈만 탄생 200주년, 말러탄생 150주년, 6 · 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비적인 해에 걸맞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리신차오 지휘, 섬세한 감성의 피아니스트 김정원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다장조 작품 15', 말러 '교향곡 제 5번'으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시민속으로 더욱 가까이 2010년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 풍성

문화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이 2010년 더욱 다양하게 펼쳐진다. 2010년 찾아가는 공연은 지난해 130회 보다는 총 155회의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공연 대상과 공연지역, 공연시기 등에 따라 사상, 녹산 등 서부산권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꿈나무소망심기 공연', 지역축제 및 구 문화회관, 문화원과 연계한 '내사랑 부산공연', 임산부를 위한 '아기사랑콘서트' 등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5개로 분류,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꿈나무소망심기공연'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통해 공연 대상학교를 선정, 4월~12월 공연이 진행된다. 4월에는 5일 운산초등학교, 7일 부산국제고, 8일 서곡초등학교, 29일 부산혜성학교에서 펼쳐진다. 새롭게 신설되는 '아기사랑 콘서트'는 산부인과와 태교교실을 방문, 5회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 4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일정

2일 19:00 지역문화축제공연 '연제한마당'-온천시민공원 (출연/무용단)
7일 19:30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고리원자력 대강당 (출연/국악관현악단, 무용단)
14일 12:30 로비콘서트-시청 로비(출연/합창단)
22일 14:00 학부모와 함께-해운대교육청(출연/교향악단)
24일 15:00 시립미술관 토요상설무대-시립미술관(출연/교향악단)
28일 12:30 로비콘서트-시청 로비(출연/무용단)
28일 14:30 근로자 위문공연-농심사상공장(출연/교향악단)
30일 14:00 아기사랑 콘서트-문화병원(출연/교향악단, 합창단)

'샤콘느' 그리고 '세링의 연주'

김의호 • 삼성여자고등학교 교사

바흐의 음악은 빈틈없고 견고하다. 이유 없는 음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느 한 곡도 놓칠 수 없다. 바흐는 걸작으로 평가되는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6곡(소나타 3곡과 파르티타 3곡으로 구성)을 남겼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파르티타 제 2번 라단조 BWV 1004 마지막 악장 '샤콘느'를 소개한다.

음악은 무형의 예술이며 시간의 예술이다. 듣고 나면 곧 사라진다. 이런 음악의 속성 때문에 각 시대에 걸쳐 작곡가들은 음악을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반복이다.

'샤콘느'는 3/4박자의 느린 춤곡으로, 8마디로 된 주제를 반복하는 변주곡이다. 혹자는 반복을 지겨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반복이며 자연의 이치 또한 순환이고 반복이다. 삶은 반복되며 심화된다. 바흐의 음악에서 반복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되며 심화되는, 삶의 이치를 닮아있다. 샤콘느에서 깊이를 더해가는 반복을 통해 사람들은 삶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음악을 위한 영화가 있어 함께 소개한다. 국내 개봉되기도 한 프랑스 영화 '바이올린 플레이어'(Le joueur de violon, 1994)는 영화 전편에 이 곡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곡이 연주된다.

한 연주가가 자신의 음악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지고 고뇌한다. 자신의 연주가 무대에서 받는 갈채와는 달리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음악이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하게 된다. 결국은 무대를 떠나 지하철 역사에서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가 된다. 그러나 삶의 밑바닥에서 음악의 본질을 꿰뚫게 되고, 마침내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의미의 세계에서 완전한 소통이 가능한 연주자가 된다. 파리 지하철 아래의 하수도 옆,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터. 그곳까지 내려 간 주인공은 자신의 연주를 간절히 원하는 병든 노인을 위해 샤콘느를 연주한다. 연주가 깊이를 더해가면서, 사람들은 음악적 임팩트를 받기 시작한다. 고함과 다툼이 가득하던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빵과 우유를 나누기 시작하고, 집을 나와 방황하는 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빛이 쏟아 내리는 지상을 향해 계단을 오르고, 도무지 어찌 할 수 없는 좌절의 심연에 빠졌던 한 무용수의 춤사위가 꿈틀거리며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노인은 그의 삶을 위로하는 어머니 손길 같은 샤콘느 선율위에 고단했던 삶을 내려놓고 잠든다.(음악감독 기돈 크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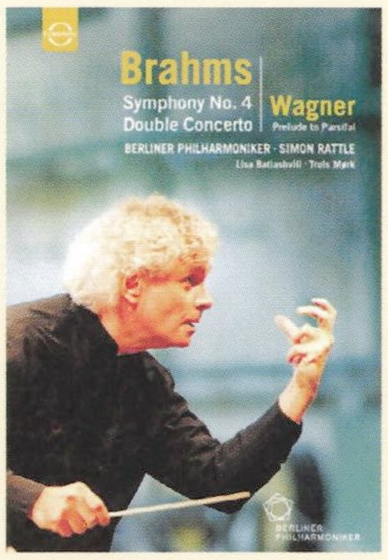
신과 음악은 신비성을 공유하고 있다. 신을 볼 수 없듯이 음악도 볼 수 없다.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이 영화는 신이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듯, 음악의 영혼을 울리는 신비한 힘을 그려내고 있다. 샤콘느야말로 그것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이다.

샤콘느는 많은 이들이 연주하였다. 다 좋다. 나 역시 여러 장의 음반을 가지고 있다. 그뤼미오, 요제프 수크, 하이페츠도 모두 명연주를 남겼다.

오늘 소개하는 헨리크 세링(Henryk Szeryng 1918-1988 폴란드)의 음반은 가장 바흐다운 연주를 담고 있다. 춤곡은 디오니소스적이지만 바흐는 그것에 감정을 절제하고 오히려 지적으로 견고하고 명확하게 구성하였다. 이것이 바흐의 작품이 시대를 뛰어넘어 먼 미래에 까지 도달하는 위대함이다. 세링의 연주는 이러한 바흐를 읽어, 엄격하고 단정한 동시에 우아하고 유연한, 상반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의 연주는 감정에 몰입하여 과장되지 않으면서 억제가 지나쳐 메마르지도 않는 품위와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바흐 연주에 있어 발군이며 교과서로 불린다. 그리고 모차르트, 브람스, 바르토크의 연주에도 뛰어난 음반을 남겼다.

NEW MUSIC

문희정 _ 지엠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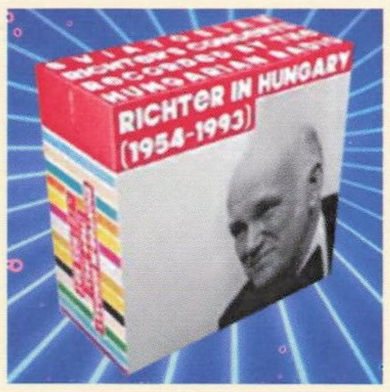


베를린필 유로피언 콘서트 2007 (DVD)

지휘/사이먼 래틀, 연주/베를린 필하모닉

▶ 베를린 필하모닉 창립 125주년 기념 유로피언 콘서트 실황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2007 유로피안 콘서트는 베를린 필하모닉 창립 125주년을 기념하여 인상적인 19세기 산업 활동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Kabelwerk Oberspree에서 펼쳐진다. 클래식 연주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주변 경관 속에 브람스와 바그너의 곡들이 놀랍도록 유연하게 스며든다.
Lisa Batiashvili와 Truls Mørk 협연 또한 완벽하며 사이먼 래틀은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자신의 뛰어난 기량을 통해 놀랍고도 신선한, 역동적인 브람스 교향곡 4번을 들려준다.



리히터 인 헝가리 (14CD Box)

연주/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

▶ 헝가리의 명 피아니스트 데즈 랑키가 엄선한 피아노의 거장 리히터 공연 녹음 모음 음반

피아노의 거장 리히터는 생전에 헝가리에서 연주하는 것을 즐겨서, 이곳에서 많은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이런 풍부한 연주회 기록 중에서 헝가리의 명 피아니스트 데즈 랑키가 엄선한 음원들로 구성된 14CD 박스 세트이다. 리히터가 동유럽 연주회를 통해 '현대의 리스트'로 알려지기 시작한 1954년부터 타계하기 4년 전인 1993년까지 40년에 걸쳐 헝가리에서 이루어진 공연 녹음들이다. 최근 연도의 녹음은 물론이고 1950-60년대 녹음도 거장의 숨결을 느끼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음질이다.
많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우상이자 경외의 대상이었던 리히터는 피아니스트 데즈 랑키에게도 절대적 존재 그 자체였다. 그는 어린 시절 리히터의 공연에서 크나큰 감명을 받았으며, 리히터의 음악세계가 자신의 음악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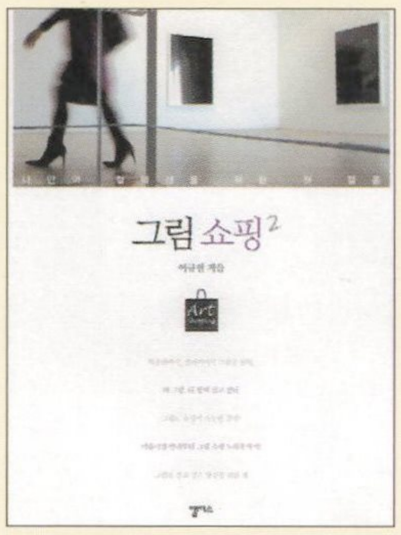
지휘, 해설/마이클 틸슨 토머스, 연주/샌프란시스코 심포니

▶ 지휘자 마이클 틸슨 토머스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가 새롭게 선보이는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예술적, 상업적 모두에서 대성공을 거둔 마이클 틸슨 토머스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키핑 스코어(Keeping Score) 시리즈가 새롭게 선보이는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의 세계! 두 번째 시리즈는 심지어 첫 번째 시리즈를 훨씬 능가하는 완성도를 지니고 있으며, 더 나은 화질과 더 다채롭고 공들여 만든 줄거리 구성으로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포문을 열어젖힌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의 탄생 배경과 작품 내용을 탐구한다. 16:9 와이드스크린과 5.1서라운드 사운드로 제공하는 〈환상 교향곡〉 전곡 실황 연주 영상물도 포함되어 있다. 악보와 그 뒤에 숨겨진 온갖 요소가 어떻게 실제 연주로 탈바꿈하는지에 집중했던 첫 번째 시리즈에 비해 작품의 본질에 집중한 흥미로운 영상물이다.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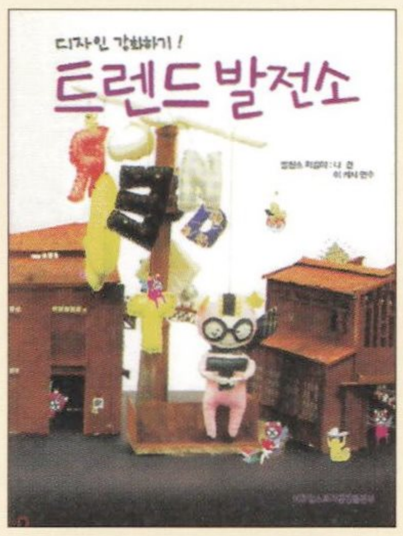
박현주 _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그림쇼핑 2

이규현 지음
앨리스
262p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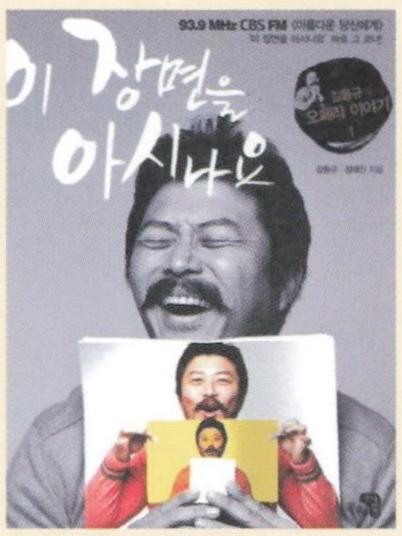
〈그림 쇼핑〉과 〈미술경매 이야기〉의 저자 이규현 씨의 책. 조선일보에서 문화부 미술 담당 기자를 하며 각종 전시부터 경매장까지 미술 관련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글을 써 온 저자는 우리나라 미술시장 현장을 제일 많이 누비고 다닌 미술시장 전문기자다. 현장을 취재하는 동안 좋아하는 그림을 손에 넣은 미술 애호가들의 행복한 순간을 목격하면서 저자는 미술과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렸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그림의 가격은 얼마인지, 이걸 사두면 나중에 오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저자에겐 당연한 이야기였다. 덕분에 일간지 기자로서는 드물게, 꾸준히 그리고 샅샅이 미술시장을 취재하면서, 미술시장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저자는 그림을 사게 되는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연히 본 그림이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쇄된 이미지를 벽에 붙이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어떤 그림을 실제로 보고 반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느낄 때가 온다. 진짜 그림을 한 번 본 이상, 이를 복제한 이미지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란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



트렌드 발전소 : 디자인 강화하기!

나건 · 이 캐시 연주 지음
비쥬얼스토리공장출판부
181p / 15,000원

'요즘 트렌드가 뭐야?' '트렌드를 모르면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면서도 트렌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트렌드란 광범위한 요소와 시간의 연속성으로 인해 불확실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것들 중,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화두를 말한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트렌드 발전소〉는 트렌드의 개념, 종류 등 기초적인 이론과 더불어 트렌드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실습 방법론 그리고 디자인발전소 1,000명의 독자가 말하는 트렌드란 무엇인가와 트렌드 구성요소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재미있는 도표와 사진으로 설명한 책이다. 책의 저술에는 공학도 출신의 디자인 교수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DTC(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의 센터장 나건 교수와 홍익대학교 이 캐시 연주 교수가 참여했다. 트렌드 전문가이자 디자인경영에 정통한 두 교수가 트렌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트렌드 읽는 방법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한다.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고민하는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연구하는 비지니스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면을 아시나요 1, 2

김동규 · 정혜진 지음
생각을 담는 집
351p내외 / 각 18,500원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는 오페라 가수 김동규가 출연하는 CBS 라디오의 클래식음악 프로그램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고정 코너인 '이 장면을 아시나요'에서 소개된 작품을 추려 책으로 엮었다. 김동규와 함께 글을 쓴 이는 프로그램의 저자인 정혜진 작가. 김동규가 음악 평론가가 아닌 가수라는 점에서 이 책은 기존의 오페라 관련 서적과 차별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함께 공연했던 가수들의 이야기와 실제 연기하면서 노래를 하는 오페라 무대에 대한 사정 등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책의 다른 특징으로는 레치타티보(서창)와 아리아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1권에는 〈리골레토〉 〈토스카〉 〈마술피리〉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라 보엠〉 〈아이다〉, 2권에는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등이 소개된다. 오페라 공연은 음악, 연극, 건축, 기술, 의상, 사회학, 경영, 마케팅, 심리학, 철학, 역사 등 온갖 분야의 지식의 총 집합체이다. 이 책은 끝없이 넓고 깊은 오페라의 세계, 음악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연무대에 자주 오르는 익숙한 작품들과 먼저 친해지고 나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문무대왕의 호국충절이 서려있는 경주

성큼 다가온 봄기운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기승을 펼친 지난 3월 12일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월 테마여행이 있는 날.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의 얼굴에는 여행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차 있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서현미, 김진영 씨가 여행 길동무로 동행하면서 정기회원 가족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3월 테마여행지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수많은 유적지 중에서도 이번 테마여행은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라의 통일군주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이 서린 문무대왕릉과 감은사, 그리고 신라의 천년고찰 기림사와 골굴사로 정해졌다.

한 시간여를 달려 경주에 도착하자 이번 테마여행의 답사를 도와줄 문화유산해설가 최승욱씨가 마중나와 있었다. 최승욱씨의 안내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문무대왕의 자취가 남아있는 감은사지(感恩寺址). 경주 시내를 벗어나자 며칠 전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기만 하다. 감은사지에 도착하자 절터에 나란히 서있는 두 개의 웅장한 석탑이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로 국보 제 112호로 지정된 감은사지 동서 3층석탑으로, 우리나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석탑이다.

신문왕 2년(682년)에 건립된 감은사는 창건 연대를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다. 끊임없이 출몰하는 왜구의 침입에 근심했던 문무대왕이 부처님의 힘으로 왜구를 격퇴하고자 세운 '진국사(鎭國寺)'의 전신으로, 문무대왕이 절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절을 완공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감은사(感恩寺)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감은사 금당, 즉 절의 본당 바닥에는 여느 절과는 달리 빈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곳에서 바로 동해의 용이 된 문무대왕이 드나들며 지친 몸을 쉬어갔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신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문무대왕의 호국충절과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했던 아들 신문왕의 효(孝)를 기리며 달려간 두 번째 유적지는 문무대왕의 수중릉으로 알려져 있는 문무대왕릉. 바닷가에서 200m 떨어

져 있는 작은 바위섬 아래 유골이 매장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기도 했으나 조사결과 수중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기림사. 기림사는 창건 당시에는 '임정사'라 부르던 것을 훗날 원효스님이 중창하여 기림사로 개칭했다. 보물 415호인 건칠보살좌상을 비롯하여 기림사 삼층석탑, 목탑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불전 양식을 볼 수 있는 대적광전, 김시습의 사당인 매월당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기림사에는 특히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약수가 유명하데, 장군을 길러낸다는 장군수와 물맛이 좋아 까마귀도 마신다는 오탁수, 눈이 맑아지는 명안수, 마음이 편안해지는 화정수,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다는 감로수 등이 그것이다. 시원한 약수한잔에 피곤이 말끔히 가신다.

오전 일정의 마지막 여행지는 석굴사원으로 유명한 골굴사.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정기회원 가족들은 골굴사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절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골굴사는 1,500년 전 천축국(인도)에서 건너온 광유스님 일행이 자국의 사원 양식을 본따서 창건한 전형적인 석굴사원이다. 암반 정상에 마애불을 조성하고 주변에 12처의 석굴을 파서 법당과 요사로 사용했는데, 여러 개의 동굴군으로 형성된 석굴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골굴사가 유일하다고 한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서자 활짝 웃고 있는 마애불이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골굴사는 특히 불교의 전통수행법인 선무도의 본산지로도 유명하다.

오후 일정의 첫번째 여행지는 장항리 절터. 지명에 따라 장항리에 있는 절이라 하여 '장항사' 혹은 '탑정사'라 불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절 이름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때늦은 폭설로 절터로 올라가는 입구가 막혀있어서 웅장한 자태의 두 탑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마지막 일정으로 은귀걸이와 솟대만들기 체험까지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서현미, 김진영씨가 준비해온 한삼을 끼고 탈춤 배우기에 도전했다. 신명나는 북장단에 맞춰 한바탕 탈춤까지 모든 일정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향했다.(글, 사진/정복엽)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펀

2010년 5월에는 **고성**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4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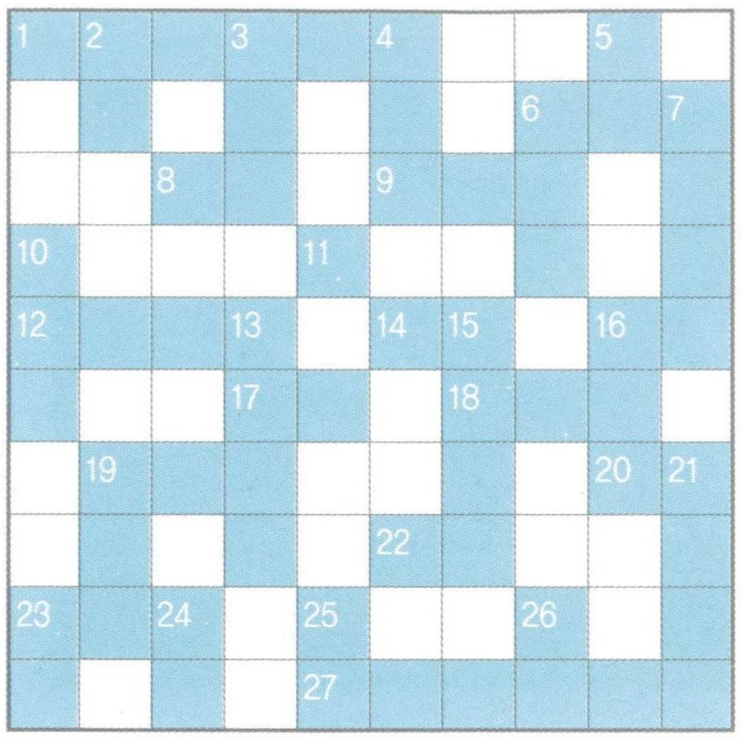
4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김명희(북구 화명3동)
김성미(부산진구 연지동)
김영란(연제구 연산9동)
김정애(연제구 거제1동)
김현옥(해운대구 우2동)
김효정(금정구 장전 2동)
손정웅(서구 서대신동3가)
이심순(남구 용당동)
정기모(기장군 기장읍)
황광주(수영구 망미2동)

신규가입자

고종수(해운대구 좌동)
김남이(부산진구 개금3동)
김성준(동구 초량동)
김충남(부산진구 연지동)
도인자(금정구 구서2동)
박정호(해운대구 반여1동)
백옥자(부산진구 개금3동)
성은진(금정구 서3동)
정수진(남구 용호동)
정용수(사하구 하단2동)



가로열쇠

1_부산문화회관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국악 및 전통무용, 클래식,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는 상설무대.

6_주어진 길이를 가장 이상적으로 둘로 나누는 비로, 근사값이 약 1.618인 무리수. 고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가 기하학적으로 정의한 이래 예술분야, 특히 건축, 미술 등에서 즐겨 응용되었다.

8_9명씩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9회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승패를 겨루는 구기 경기.

9_TV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 전국에서 가장 해안에 가까운 역이 있는 일출명소.

11_화살을 메워서 쏘는 기구, 혹은 돛을 세는 단위.

12_이탈리아어로 '바 안에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즉석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14_농악대, 걸립패 등에서 상쇠의 목말을 타고 춤추고 재주 부리던 아이.

16_농민생활을 많이 그렸던 프랑스 화가. 대표작으로 '만종' '씨뿌리는 사람' '이삭줍기' 등이 있다.

17_민속음악에 속하는 기악 독주곡 형태의 하나.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아쟁 순으로 발생했으며, 반드시 장구 반주가 따른다.

18_아프리카 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사막.

19_중국 사대기서(四大奇書)의 하나. 108명의 호걸이 양산박에 모여 간악한 무리와 탐관오리를 징벌한다는 내용.

20_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도가(道家)의 시조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존중했다.

22_문학작품 등을 소리내어 읽음.

23_정열의 집시여인 ○○○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돈 호세 하사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오페라.

27_재즈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있는 보컬로 평가받는 미국의 재즈 여왕.

세로열쇠

2_알프스 지방에서 가성(假聲)을 섞어 특이한 소리를 내어 부르는 민요, 또는 그런 창법.

3_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에서 선악이 공존하는 광기 어린 명연기로 주목받은 후 영화 '공공의 적' '오아시스' '실미도' '해운대' 등에 출연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배우.

4_우리나라 음악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까지 오른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

5_부산진구의 한 洞으로, 마을의 모양이 꼭 거문고가 길게 늘어져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6_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로 불린 조선시대 시인 겸 명기(名妓).

7_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국제미술전람회.

10_1,300만명을 동원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물리치고 한국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13_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玉)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신의 학덕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

15_홍콩 작가 김용의 무협소설 '사조영웅전'의 인물을 모티브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무협 영화로 만들어낸 왕가위 감독의 1994년 작 영화.

16_이탈리아 최대의 공업도시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오페라극장인 라스칼라극장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벽화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성(聖)마리아성당 등이 있다.

19_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으로 형성된 바빌로니아 남부에 위치한 세계 최고(最古)의 문명이 발상한 지역, 민족, 또는 그 문명을 일컫는다.

21_자질게 몰아간다는 뜻에서 붙여진 장단 이름. 산조의 악장 중에서 뒷부분에 위치하고 아주 빠르게 몰아가는 신명나는 장단이다.

23_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

24_고대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을 이른다.

25_움직이는 조각. 1932년 미국의 조각가 H.콜더의 작품이 '오브제 ○○(움직이는 오브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부터 미술용어로서 사용되었다.

26_'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라는 말을 남긴 20세기 가장 유명한 프로복서.

지난호 정답

리	처	드	용	재	오	닐		인	
	용			즈		암	행	어	사
탈	무	드				스		공	
레			모	차	르	트		주	몽
스	펙		나			롱			유
		할	리	우	드		오	감	도
헨	델		자		보	고	타		원
리		쿤		게	르		쿠		도
사		데			작	가		무	
세	헤	라	자	데		훈	민	정	음

퍼즐당첨자 명단

■ 조은극장

김은미(사하구 괴정동)
정화애(부산진구 전포3동)
박성민(연제구 거제2동)
변현미(영도구 영선동)
권미정(수영구 광안동)

■ 공간 소극장

류달용(동구 초량1동)
성영순(동래구 칠산동)
성유리(기장군 기장읍)
이생구(연제구 연산6동)
최미정(남구 대연 3동)

■ 나랏소

심은정(남구 용당동)
이영미(수영구 남천동)
이창용(해운대구 좌동)
박미숙(사상구 가야동)
박진규(남구 대연3동)

■ 큰집

김창욱(사하구 괴정2동)
안경희(남구 문현동)
박현정(부산진구 부전동)
정해주(동구 초량2동)
최경연(수영구 광안2동)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4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좋은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임동혁을 만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사람들의 성의가 가치있게 느껴졌다. 진리는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이 진리라는 말처럼 임동혁의 피아노는 나와 그날 온 사람들에게 꼭 맞는 아름다움인 것 같았다.

–최진원(서구 암남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7회 정기연주회

체코 중부에 있는 도시 '일랴바'의 식당 '말러(G. Mahler)'에 들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 흔한 그림이나 실내 장식물 하나없이 사방 벽이 모두 흰색이던…. 그 이유를 묻는 저에게 그 식당 주인이 오히려 반문하더군요. '말러음악을 어떻게 감상하느냐'고…. 그저 들리는대로 듣는다고 했더니 그 말이 정답이라며, 제가 신청한 말러 교향곡 4번 전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때 그 좋았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 연주회이네요. 젊은 리 신차오의 모범적이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공법(正攻法)의 좋은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옥(금정구 구서동)

넌버벌퍼포먼스 '점프'

갱년기로 고생 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뮤지컬 점프를 관람했습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뮤지컬답게 공연장에는 일본인 관광객과 서양인들로 붐볐습니다. 최소한의 대사와 화려한 무술동작으로 시종일관 관객들의 넋을 빼놓던 뮤지컬 점프!! 무엇보다도 아이처럼 웃고 박수까지 치며 관람하던 어머니를 볼 수 있었던 제 생애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점프를 계기로 앞으로 어머니께 더 많은 공연선물을 해야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임현지(동래구 낙민동)

뮤지컬 '헤드윅'

헤드윅이 가지고 있는 아픈 과거, 사랑이야기, 그리고 자아. 헤드윅은 첫 인상은 당당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었어요. 하지만 헤드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알아갈수록 헤드윅의 아픔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남들과 다르기에 겪는 아픔들, 남들과 다르기에 받는 편견들. 아픔과 고통을 견디기 위해 노래하는 헤드윅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 속의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예능스러운 위트, 가슴을 더욱 뛰게 해주는 연주까지 …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공연이었습니다 ^_^

–김미영(사상구 모라1동)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2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비 5% 할인받자!!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대표전화 070-8270-420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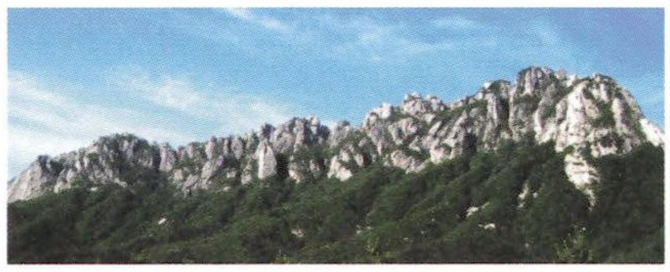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한국의 봄 국내여행

가볍게 떠나는 봄맞이 테마여행

[테마여행]
담양 웰빙온천과 죽녹원
AKFK08 40,000원

[케이블카포함]
통영/해금강/외도/신선대
AKFK17 5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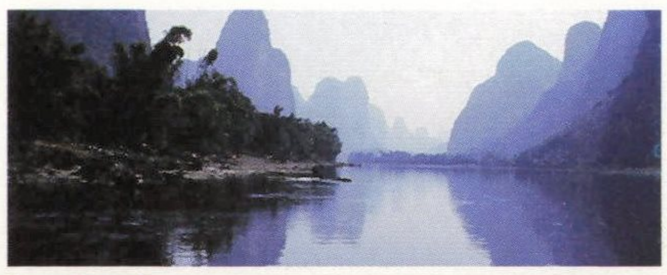


[딸기따기체험 1박2일]
월정사/설악산/아바이마을
AKFK26 130,000원~

3大名山 중국여행

안보면 후회하는 중국의 천하절경여행

[황산]
상해/항주/황산 5일
CCP755 479,000원~



[계림산수]
상해/계림 5일
CCP759 799,000원~

[장가계]
상해/(항주or소주)/장가계 5일
CCP752 819,000원~

꽃내음 물씬 일본여행

봄이라 더욱 좋은 일본 여행

[카멜리아]
큐슈 온천여행 3일
JKP565 26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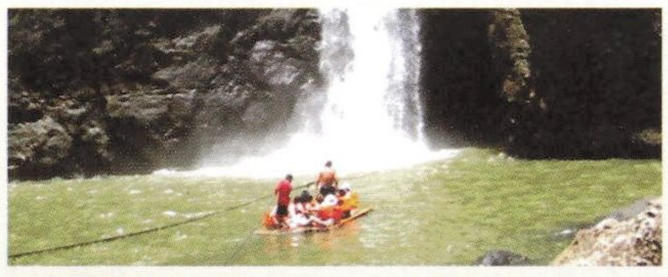
[아시아나]
오사카/교토/나라 3일
JOP701 599,000원~

[준특급]
동경 자유여행 3일
JTA701 6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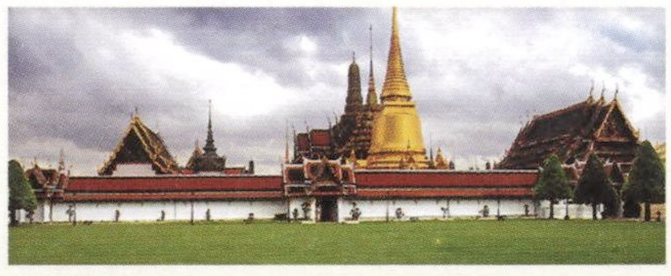
추천특가 동남아여행

미리 가는 여름휴가! 추천특가상품

[육로이동]
방콕/캄보디아 5일
AAP771 599,000원~



[매일출발]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APP701 599,000원~



[관광형]
방콕/파타야 4,5일
AAP701 59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박상헌 팀장 070-8270-4217 / 김수현 070-8270-4209

전국 대표전화
070-8270-4209
www.hihana.co.kr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4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산조춤(춤/정진희)

엇박의 묘미를 취하고 있는 음악과 섬세함과 절제가 어우러진 춤이 특징적이며,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화시켜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는 멋에 묘미가 있는 춤.

청실홍실(춤/류권홍, 이상민)

천생연분을 뜻하며 혼례에 쓰는 남색과 붉은색의 명주실 테를 지칭하는 청실홍실을 모티브로 하여 늘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원앙새의 사랑을 듀엣 작품으로 재구성한 창작무용.

살풀이춤(춤/김주연)

한국 전통춤의 백미로 불리며 춤사위와 발 디딤이 섬세하고도 격조있게 정중동의 미적 세계를 그려낸다.

토끼와 거북이(용왕/김병주, 토끼/김시현, 자라/최의옥, 의원/허태성)

부산시립무용단의 2009년 마당춤판 '별주부전'의 주요 부분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용왕을 구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해야만 하는 자라와 간을 지켜야 하는 토끼의 이야기가 코믹한 몸짓 속에 녹아있는 작품이다.

흥타령(춤/이현정, 오수연, 김경미)

한국 민중들의 흥과 다양한 몸짓의 이미지를 소박한 전통악기 중 하나인 소고를 이용한 춤사위로 무대화한 작품으로, 흥겨움이 가벼운 리듬과 몸짓 속에 녹아 있는 민초들의 삶의 원천을 느낄 수 있는 작품.

한량무(춤/이성원)

멋과 풍류를 세월에 안은 한량들의 투박한 춤사위와 덧배기 사위들이 조화로운 형태로 변모되어 예술적 가치와 전통미를 인정받은 춤.

황창랑무 (춤/박상용, 강모세, 황대현, 김공주, 이화성, 윤은하, 이현주, 안주희)

'동경잡기'에 검무를 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7세 소년화랑 황창의 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

· 수석안무자/홍기태 · 해설/이현숙

4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국악그룹 아비오 초청 연주회

2007년 12월 결성된 국악그룹 〈我아飛비娛오〉는 나 아(我), 날 비(飛), 즐거워할 오(娛)를 써서 '스스로 음악 속에서 즐거이 날아보자'는 의미를 가진 실내악단이다. 한국적인 느낌과 전통의 색깔을 고수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윤승환/훨훨

경기민요 창부타령과 농악의 능계가락을 슬로우락 비트에 접목한 곡으로 Groove적인 요소를 극대화한 곡.

김성겸/바람이 그림에게 들려주는 노래

온 세상을 제 마음껏 보고 듣고 느끼는 바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림에게 전하는 세상이야기. 애절한 해금 선율이 특징이다.

김성겸/야상풍류

시나위의 기본적인 굿거리장단에 4박을 섞어 아비오만의 독특한 현대시나위로 풀어낸다.

윤승환/상사화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상사화에 빗댄, 서정적이고 애잔한 멜로디가 특징. 국악적 선율에 가요적 요소를 가미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古 · GO · 告(편곡/김성겸)

아비오가 어릴 적, 혹은 자라면서 듣고 자란 8~90년대 명곡들을 모아 아비오만의 느낌으로 편곡했다.

윤승환/외쳐라

국악과 펑키락을 접목하여 흥겨운 비트를 강조한 곡으로 우리나라의 추임새를 랩에 접목하여 흥겨움을 더하였다. 〈2008 제1회 대학국악제〉에서 입상한 곡으로 아비오의 첫 번째 자작곡.

윤승환/날 좀 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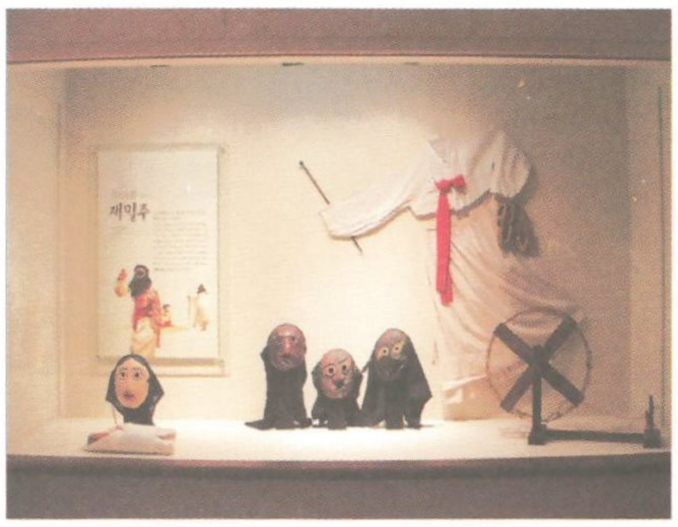
민요 '밀양아리랑'을 하우스풍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곡으로 보컬의 민요와 랩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관객들과 함께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곡이다.

• 관람료 : 선착순 무료 입장(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탈박물관

▶ 5월 14일 (금) 고성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옥천사를 시작으로 민중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탈 박물관,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등 공룡 나라 고성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 떠나는 봄나들이.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옥천사 도착, 공룡발자국, 옥천사 불교문화 유적 답사

▷ 11:00 장산 숲, 허씨고가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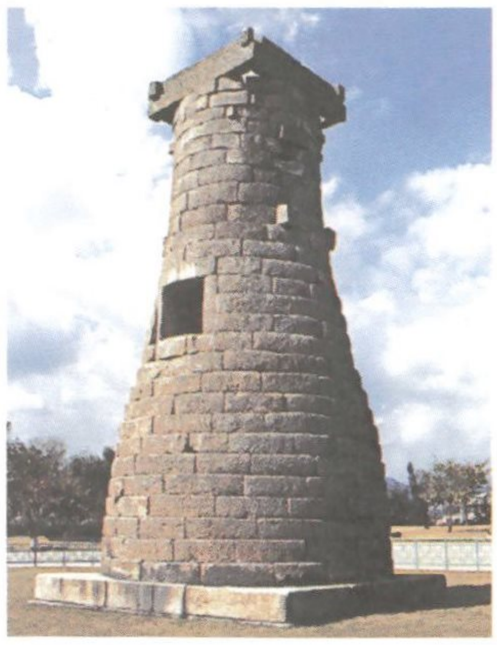
▷ 12:30 중식

▷ 13:30 탈박물관 관람, 탈 만들기 체험

▷ 15:30 고성 오광대보존회와 함께 하는 고성오광대 한마당

▷ 16: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첨성대

▶ 6월 11일 (금) 선덕여왕의 숨결을 따라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6월 테마여행.
선덕여왕 재임 중 건립된 분황사, 첨성대, 선덕여왕릉, 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유신장군묘, 태종무열왕릉 등을 따라 가며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선덕여왕의 지혜를 배워본다.

▷ 10:00 분황사, 황룡사터, 첨성대 관람

▷ 12:00 중식

▷ 13:00 능지탑, 선덕여왕릉, 사천왕사터, 김유신장군묘, 태종무열왕릉 관람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산딸기 따기 체험(산딸기 따기 체험은 수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천 시에는 솟대만들기, 은귀걸이 만들기로 변경됩니다)

▷ 17:00 부산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8 -오지은

2010.4.16(금)pm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티켓 | 전석 30,000원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8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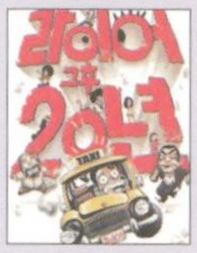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라이어 2탄 '그후 20년' 20% 할인



2010. 3. 12(금)~5. 16(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810-7000

JUMP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 · 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능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051-611-1960

예매 및 문의
051)804-2252

부산 비보이전용극장 THEATER 서면 구.은아극장

사랑한 비보이를 발레리나

20%할인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화~금 20시/ 토 16,20시/ 일 및 공휴일 15,18시(월 휴관)
* 쿠폰제시 시 1인 4매까지 할인/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타 할인과 중복 불가능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2010년 5월 응모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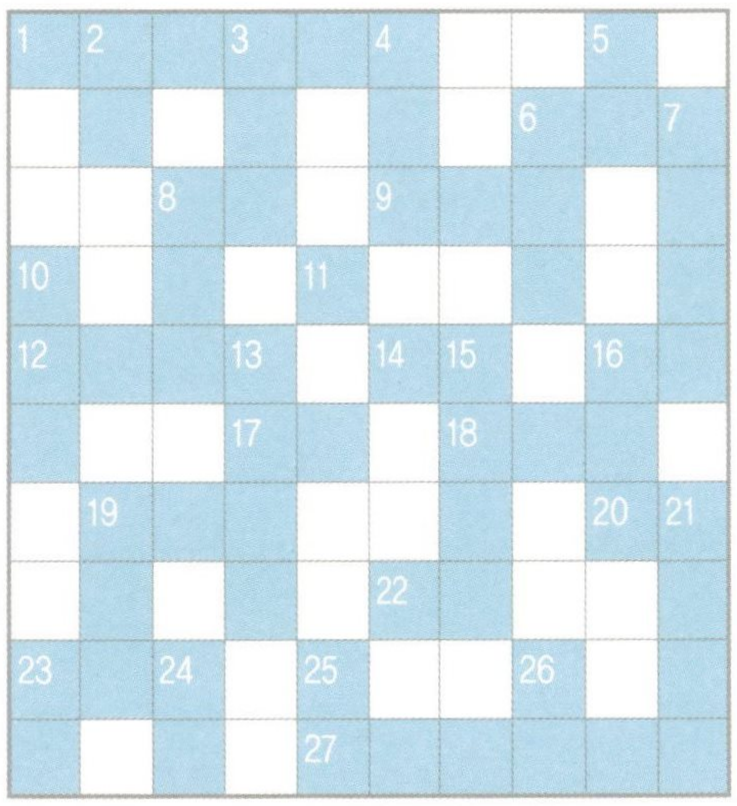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YES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

www.bipaf.org

연극의 경계선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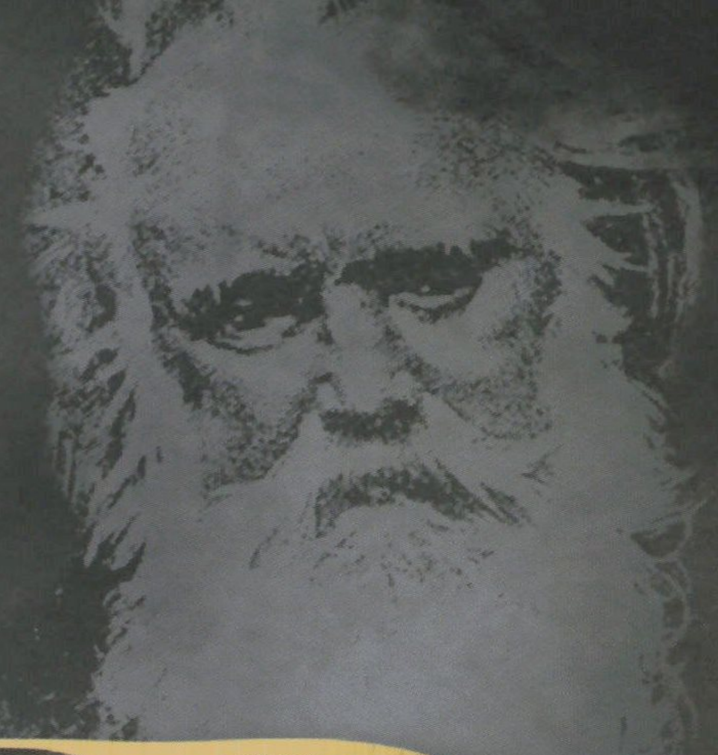
2010. 5. 1(토)~10(월)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용천지랄소극장

•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주관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 문의 : 051-802-800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58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BBB

Brahms

Beethoven

Busan

베 토 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L.v.Beethoven Piano Concerto No.5 "Kaiser"

브 람 스 교향곡 제1번
J.Brahms Symphony No.1

지휘 **리 신차오**

피아노 **김진선**

2010.4.16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 의 607-6101~4 (부산시향) 607-6070 (홍보마케팅부)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